

머리말



제 수업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가장 실전에 적합한 수업”

저는 국어교육과 출신도 아니고 국어국문학과 출신도 아닙니다.
아마도 제 전문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국어라는 과목을 ‘학문’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험’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국어로 한방에 대학 갑시다!

“가장 재미있는 수업”

저는 국어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사용합니다.
제 수업은 화려한 아이돌보다, 혹은 유튜버들보다 재미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수업 듣는 내내 몰입감 높은 강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수업”

제가 말한 ‘인간적’이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DNA에 깊이 내장된 인간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학습의 중추인 뇌에 대해서 다른 강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학습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1 강의 목표

학생들이 강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만약 강의 전, 후에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시간 낭비한 것이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반드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2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1) 한번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감상’이 아닌 ‘공부’를 하도록 한다.

2) ‘예습’과 ‘복습’은 필수!

예습 하는 방법:

- 수업 동안 나갈 부분을 10~20분 정도 한번 내용을 훑어본다.

복습 하는 방법:

-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은 **색갈펜**으로 필기하고, 내가 했던 것과 비교한다.
- 효과적인 복습을 위해 반드시 당일 복습을 한다.
- 이후에도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질문한다.

복습 계획서



생각없이 공부하면 아무것도 안남는다! 계획이 없으면 공부 금지!

[illegible]

이 책의 차례

Part 1. 시작이 반

01	고전시가 기출 분석	13
02	고전시가의 특징	15
03	고전시가 발음 방법	17
04	고전시가 필수 어휘	20

Part 2. 작품

Chapter 1. 시조/가사

Theme 1.

유교적 사상

평시조 및 사설시조

충

01	이정보 - 국화야 너는 어이~	54
02	원천석 - 눈 무자 휘여진 뒤를~	56
03	왕방연 -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58
04	성삼문 - 수양산 바라보며~	60
05	이개 - 방 안에 헛는 촉불~	62

효

06	박효관 - 뉘라서 가마귀를~	64
----	-----------------	----

기타

07	변계량 - 내해 도타 하고~	66
----	-----------------	----

연시조

08	안민영 - 매화사(梅花詞)	70
09	박인로 - 조홍시가	73

Theme 2.

강호한정

평시조 및 사설시조

10	송순 - 십 년을 경영하여~	80
11	조식 - 두류산 양단수를~	82
12	한호 - 짚방석 내지 마라~	84
13	김천택 - 백구야 말 물어 보자~	86

연시조

14	맹사성 - 강호사시가 (江湖四時歌)	90
15	이현보 - 어부단가(漁父短歌)	93
16	윤선도 -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96
17	윤선도 - 만흥(漫興)	105
18	이황 -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	108
19	이이 -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113
20	권호문 -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118

가사

21	정극인 - 상춘곡(賞春曲)	123
22	송순 - 면앙정가(俛仰亭歌)	128

Theme 3.

유배 문학

평시조 및 사설시조

23	이항복 - 철령 높은 봉에~	139
24	작자 미상 - 개야미 불개야미~	141

연시조

25	윤선도 - 견회요(遣懷謠)	145
----	----------------	-----

가사

26	조위 - 만분가(萬憤歌)	149
27	정철 - 사미인곡(思美人曲)	155
28	정철 - 속미인곡(續美人曲)	161

Theme 4.

사랑과 이별

평시조 및 사설시조

29	이조년 - 이화에 월백하고~	169
30	홍량 - 뒤통들 갈해 것거~	171
31	황진이 - 어저 내일이여~	173
32	황진이 - 동짓달 지나긴 밤을~	175
33	작자 미상 - 귀뚜리 저 귀뚜리~	177
34	작자 미상 - 개를 여려문이나 기리되~	179
35	작자 미상 - 님이 오마 후거늘	181

Theme 5. 사실적인 삶

평시조 및 사설시조

- 36 작자 미상 -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185

가사

- 37 박인로 - 누항사(陋巷詞) 189
38 허난설헌 - 규원가(閨怨歌) 195

Theme 6. 사회 비판

평시조 및 사설시조

- 39 작자 미상 -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203
40 작자 미상 - 두터비 파리를 물고~ 205

Theme 7. 기행가사

가사

- 41 정철 - 관동별곡(關東別曲) 210
42 김인겸 - 일동장유가 221

Theme 8. 솔직한 감정

평시조 및 사설시조

늪음

- 43 우탁 - 춘산에 눈 녹인 바람~ 228

답답함

- 44 작자 미상 -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230

인생무상

- 45 길재 - 오백 년 도읍지를~ 232

Chapter 2. 향가

- 46 월명사 - 제망매가(祭亡妹歌) 236

Chapter 3. 고려가요

- 47 정서 - 정과정(鄭瓜亭) 240
48 작자 미상 - 동동(動動) 242
49 작자 미상 - 가시리 247
50 작자 미상 - 청산별곡(靑山別曲) 249



Part 1.

시작이 반

01

고전시가 기출 분석

1 고전시가 기출 분석

- 10년간 시조 30회, 가사 19회, 고려가요 3회.
- ‘필수 작품’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최근에는 ‘새로운 작품’들도 나오고 있다.

2025	수능	갑민가, 녹양방초 언덕에 ~	가사 / 시조
	9월	풍파에 일렁이던 배~, 심익산 서너바퀴~, 호아곡	시조 / 시조 / 시조
	6월	우부가	가사
2024	수능	일동장유가, 화암구곡	가사 / 시조
	9월	성산별곡,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가사 / 시조
	6월	한거십팔곡	시조
2023	수능	도산십이곡, 지수정가	시조 / 가사
	9월	어부단가, 소유정가	시조 / 가사
	6월	사시가, 자도사	시조 / 가사
2022	수능	탄궁가, 농가	가사 / 시조
	9월	규원가,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가사 / 시조
	6월	유객, 율리유곡	한시 / 시조
2021	수능	사미인곡, 창 밧긔 워석버석~	가사 / 시조
	9월	만흥	시조
	6월	관동별곡	가사
2020	수능	월선헌십육경가	시조
	9월	상춘곡, 고산구곡가	가사 / 시조
	6월	유원십이곡	시조
2019	수능	일동장유가	가사
	9월	한거십팔곡	시조
	6월	서경별곡, 만분가	고려가요 / 가사
2018	수능	비가	시조
	9월	춘향이별가	잡가
	6월	오륜가	시조
2017	수능	연행가	가사
	9월	방옹시여,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	시조 / 시조
	6월	동동, 가시리, 풍(관저)	고려가요 / 고려가요 / 한시
2016	수능	용비어천가, 강호사시가	약장 / 시조
		고공답주인가, 어와동량재를~	가사 / 시조
	9월	탄궁가	가사
		전원사시가, 산중잡곡	시조 / 가사
	6월	동창이 밝았느냐, 농가, 농가월령가	시조 / 시조 / 가사
		어이 못 오던다, 청천에 떠서~, 정선아리랑	시조 / 시조 / 민요

CV

02

고전시가의 특징

2 고전시가의 특징

옛날 사람들 특징

1. 조상님들을 좋아함

: 선대는 태평선대.

2. 중국을 좋아함

: 옛날의 Made in China는 명품.

3. 자신이 많이 공부했다는 것을 티내는 걸 좋아함

: 그래서 이전 작품들에서 나왔던 ‘주제’와 ‘표현법’이 많이 나오고,

‘고사*’가 많이 차용된다. 그래서 필수 작품을 공부하면, 다른 작품도 쉽게 독서할 수 있게 된다.

(*고사는 p. 40~47)

당연히 여러 개가 섞여 있을 수 있어!



4. 고전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

- 1) 유교적 사상
- 2) 강호한정
- 3) 유배문학
- 4) 사랑과 이별
- 5) 사실적인 삶
- 6) 사회비판
- 7) 솔직한 감정

03

고전시가 발음 방법

3 고전시가 발음 방법



소리내어 읽자! 현대어와 형태가 달라도, 발음은 비슷한 경우가 많다.

1 소리내어 읽자!

연철(이어적기), 원순모음화(‘ㄹㅁㅂ’ + ‘ㅡ’ → ‘ㄴ’), 8중성법(ㄱㄴㄷㄹㅁㅂㅅㅇ만을 중성으로 사용)은 소리 내어 읽으면 파악할 수 있다.

예문

一生(일생)애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네 무삼 힘으로 가지 돌쳐 곳조차 저리 피엿는다.

해석

일생애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네 무슨 힘으로 가시 돌쳐 꽃조차 저리 피었는가.

2 아래아는 ‘ㅏ’나 ‘ㅡ’로

첫 번째 음절의 아래아는 ‘ㅏ’, 두 번째 이하 음절의 아래아는 ‘ㅡ’로 읽는다.

예문

물 흐르듯 흐느고야.
흐르도 열 두 켜 흔 돌도 설흔 날

해석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3 어두자음군은 된소리로

어두자음군은 단어의 초성에 자음이 2개 이상 쓰이는 것을 말한다.
어두자음군 중 뒤에 있는 것을 된소리로 읽는다.

예문

香氣(향기)예 잠을 췌니
그 아래 비를 띄워

해석

향기에 잠을 깨니
그 아래 배를 띄워

4 두음 법칙 적용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냐, 니, 녀, 뇨, 뉴’ 발음을 ‘이, 야, 여, 요, 유’로 읽는다.

예문

자고 니려 우러라 새여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해석

자고 일어(나) 올러라 새여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기에

5 구개음화 적용

‘ㄷ, ㅌ’와 ‘ㅣ, ㅑ, ㅓ, ㅕ, ㅠ’가 만나면 ‘ㅈ, ㅊ’로 읽는다.

예문

디논 히를 구버보니
어와 더 족하야 밥 업시 엇디 하고.

해석

지는 해를 굶어보니
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 할까.

6 반치음 (ㄹ)

반치음(ㄹ)은 ‘ㅇ’이나 ‘ㅅ’으로
첫소리에서는 ‘ㅇ’으로, 끝소리에서는 ‘ㅅ’으로 읽는다.

정과정

예문

내 님를 그리수와 우니다니

해석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나니

용비어천가 (125장)

예문

千世(천세) 우희 미리 定(정)하산 漢水北(한수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하샤 卜年(복년)이 궁업스시니

해석

천세 전에 미리 (도읍지로) 정하신 한양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점지 받은 운명이 끝이 없으시니.

04

고전시가 필수 어휘

4-1 명사

4-2 동사, 형용사

4-3 부사

4-4 조사, 어미

4-5 자주 나오는 고사

4-6 사대부의 생각 따라가기

4-1 명사



꺾람 : 강

예문

꺾루미 푸르니 새 더욱 희오 (두보, '절구')

해석

강이 푸르니 새 더욱 희고



꺾술 : 가을

예문

어느 꺾술 이른 부르매 (월명사, '제망매가')

해석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꺾 : 가. 끝.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꺾'으로 나타난다.)

예문

마슴미 꺾홀 좇누아져 (충담사, '찬기파랑가 - 양주동 해독')

해석

마음의 끝을 좇으려다



건곤(乾坤) : 하늘과 땅. 온 세상.

예문

건곤(乾坤)도 가옴열샤 간 대마다 경이로다. (송순, '면앙정가')

해석

온 세상이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경이롭다.



곰비/님(림)비 : 뒤/앞.

예문

德(덕)으란 곰비에 받좁고, 福(복)으란 림비에 받좁고 (작자 미상 '동동')

해석

덕이란 뒤에 바치웁고, 복은 앞에 바치웁고



꽃 : 꽃

예문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돌윗고지여 (작자 미상, '동동')

해석

삼월 지나며 핀 아아 늦봄 진달래꽃이여



관산 : 국경. 관문.

예문

사호땃 무리 관산 북녀괴 잇느니 (두보, '등악양루')

해석

싸움터의 말이 관산 북쪽에 있으니



나리 : 시내

예문

새파란 나리어히 / 기랑(耆郎)의 즈시 이슈라
(충답사, '찬기파랑가 - 양주동 해독')

해석

새파란 냇물에 / 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날애 : 날개

예문

향 드든 날애로 님의 오식 올므리라. (정철, '사미인곡')

해석

향 문은 날개로 님의 옷에 움으리라



남여(藍輿) : 가마

예문

남여(藍輿)를 비야 투고 솔 아리 구븐 길로 오며 가며 흥논 적의
(송순, '면앙정가')

해석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녀름 : 여름

예문

긴 녀름스 강촌에 일마다 유심^하도다 (두보, '강촌')

해석

긴 여름의 강촌의 일마다 한가롭도다.



녹양(綠楊) : 푸른 버드나무

예문

녹양방초(綠樣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정극인, '상춘곡')

해석

푸른 버드나무는 가랑비 중에 푸르도다.



디 : 곳

예문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작자 미상, '서경별곡')

해석

닭은 데 쇼성경 사랑하지만



도롱이 : 비옷

예문

도롱이에 흙의 걸고 뽕 굵은 검은 쇼 물고 (위백규, '농가구장')

해석

도롱이에 호미 걸고 뽕 굵은 검은 소 물고



도화(桃花) : 복숭아꽃.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예문

도화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작자 미상, '유산가')

해석

복숭아꽃 만발하여 여기저기 붉구나.



모침(茅簷) : 초가지붕의 처마.

예문

모침(茅簷) 비친 히를 옥루(玉樓)의 올리고저. (정철, '사미인곡')

해석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뒀 : 산

예문

이 뒀히 안자 보고 댜 뒀히 거러 보니 (송순, '면앙정가')

해석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믈 : 물

예문

7업슨믈결이 깃편 듯ㅎ여 잇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끝없는 물결이 비단 편 듯하여 있다.



바를 : 바다

예문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를래 살어리랏다 (작자 미상, '청산별곡')

해석

살겠노라 살겠노라 바다에 살겠노라



반중(盤中) : 소반 위. 밥상 위.

예문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박인로, '조홍시가')

해석

소반 위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는구나.



백구(白鷗) : 흰 갈매기 (자연친화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동원되는 자연물이다.)

예문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존나가 제 존나가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욕심 없는 백구는 나를 쫓는가 저를 쫓는가



별 : 바람

예문

六月(유월)의 보로매 아우 별해 부른 빗 다호라. (작자 미상, 동동)

해석

유월 보름에 아아 바람에 버린 빗 같구나.



블 : 불

예문

성문(城門) 모던 블의 옥석(玉石)이 함피 타니 (조위, '만분가')

해석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벽계수(碧溪水) : 푸른 시냇물

예문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정극인, '상춘곡')

해석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사창(紗窓) : 비단 창. 여인의 방.

예문

사창(紗窓) 여원 잠을 살뜰리도 깨오는고야.
(작자 미상, '귀포리 저 귀포리~')

해석

비단 창에 여원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삼춘(三春) : 봄. (삼하(三夏)/삼추(三秋)/삼동(三冬)=여름/가을/겨울)

예문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봄날 꽃과 버들 좋은 시절의 경치가 의미없다.

사계절을 상징하는 표현들

봄 (春)	여름 (夏)	가을 (秋)	겨울 (冬)
동풍(東風) : 봄바람, 섣바람	남풍(南風) : 여름바람, 마파람	서풍(西風) : 가을바람, 하늬바람	북풍(北風) : 겨울바람, 뒤풀
세우(細雨) : 가랑비, 봄비	소나기 : 여름철 갑작스러운 비	서리 : 가을의 찬 기운	눈(雪) : 겨울철 강설
매화(梅花), 도화(桃花), 행 화(杏花): 봄꽃	난초(蘭草) : 여름에 피는 꽃	추초(秋草) : 가을의 쇠락한 풀	
녹양(綠楊): 푸른 버드나무 방초(芳草): 꽃다운 풀	녹음(綠陰) : 짙어진 나무 그늘	기러기 : 가을철 철새	빙설(氷雪) : 얼음과 눈

소(沼) : 연못

예문

억만장(億萬丈) 소희 빠져 하늘따흠 모놀노다 (조위, '만분가')

해석

억만 장 깊은 연못에 빠져 하늘땅을 모르는구나.

수간모옥(數間茅屋) :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집.

예문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정극인, '상춘곡')

해석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슈품(手品) : 솜씨

예문

슈품(手品)은 ㄱ니와 제도(制度)도 ㄱ줄시고, (정철, '사미인곡')

해석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시비(柴扉) : 사립문

예문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송순, '면앙정가')

해석

사립문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시앗 : 첩

예문

요약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시앗년에 (작자 미상, '용부가')

해석

요사스럽고 악한 아우 동서와 여우같은 첩년에



실솔 : 귀뚜라미

예문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올 제,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가을 달빛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침상에 올 때



쌩 : 땅

예문

이 싸흘 브리곡 어디 갈더 흘디 (충담사, '안민가 - 양주동 해독')

해석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 수 있겠는가 하면

약수(弱水) : 중국 설화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 건너야 한다는 전설의 강. (도교적 소재)

예문

약수(弱水) 가리진디 구름 길이 머흐러라 (조위, '만분가')

해석

약수 가로놓인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여름 : 열매

예문

불휘 기픈 남근 부르매 아니 뭇썩 곳 도쿄 여름 하노니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해석

부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예문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뻗는 듯. (정극인, '상춘곡')

해석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비단을 펼치는 듯.

옥창(玉窓) : 옥으로 된 창. 여인의 방.

예문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 몇 번이나 피여진고.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지는가.

우음 : 웃음

예문

말씀도 우음도 아녀도 못내 도하 호노라. (윤선도, '만흥')

해석

말씀도 웃음도 없어도 못내 좋아 하노라.



이리 : 아양. 애교.

예문

이리야 교티야 어저러이 구똥썸디 (정철, '속미인곡')

해석

애교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는데



이화(梨花) : 배꽃. 흰색의 색채 이미지 (봄을 나타내는 시어로 사용된다.)

예문

이화(梨花) 가디 우희 밤낮줄 못 올거든 (조위 '만분가')

해석

배꽃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정지 : 부엌

예문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작자 미상, '청산별곡')

해석

가다가 가다가 들노라 부엌에 가다가 들노라.



제 : 때

예문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위백규, '농가')

해석

아마도 하느님 너희 만들 때 날 위하여 만드셨다.



즈믄 : 천

예문

즈믄 히를 아즐가 즘흔 히를 외오곰 녀신돌 (작자 미상, '서경별곡')

해석

천 년을 아아 천 년을 외로이 지내신들



즌 데 : 진 곳(위험한 곳)

예문

어귀야 즌 데를 드터올세라 (작자 미상, '정읍사')

해석

아아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줏 : 모습이나 모양.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중'으로 나타난다.)

예문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작자 미상, '동동')

해석

만 명을 비칠 모습이시다.



청약넙/녹사의 : 샷갓/우비

예문

청약넙(靑簍笠)은 씨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냐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샷갓은 씨 잇노라 우비 가져오는가.



초당(草堂) : 초가집.

예문

강호(江湖)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맹사성, '강호사시가')

해석

자연에 여름이 드니 초가집이 한가하다.



촉 : 초. 촛불.

예문

방 안에 헛는 촉불 놀과 이별하엿관대 (이개, '방 안에 헛는 촉불~')

해석

방 안에 켜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침선 : 바느질

예문

침선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 새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

해석

바느질 돕는 도구를 각각 이름을 정하여 친구로 삼을 때,

푸람 : 휘파람

예문

을프락 푸람호락 노혜로 놀거니 (송순, '면앙정가')

해석

(시를)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플 : 풀

예문

음애(陰崖)에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소라. (정철, 관동별곡)

해석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시는구나.

하암(향암) : 어리석은 시골뜨기.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예문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分(분)인가 호노라. (윤선도, '만흥')

해석

어리석은 향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해오라비 : 해오라기. 하얀 백로

예문

검은 까마귀 해오라비 되도록에 (김구, '올희 달은 다리')

해석

검은 까마귀 해오라기 되도록에

4-2 동사, 형용사

가없다 : 끝없다.

예문

복년이 가없으시니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해석

복된 해가 끝없으시니

괴다 : 사랑하다.

예문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훈가마는 (정철, '속미인곡')

해석

내 얼굴 이 행동이 임께서 사랑하실 만한가마는

긋다 : 끊어지다.

예문

노픈 듯 늑즌 듯 긋는 듯 닛는 듯 (송순, '면앙정가')

해석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녀다 (니다, 네다) : 가다. 지내다.

예문

즈믄히를 외오곰 녀신돌 (작자 미상, '서경별곡')

해석

천 년을 외롭게 살아가신들

늦기다 : 흐느끼다

예문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정철, '사미인곡')

해석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넋다 : 이어지다.

예문

노픈 듯 누른 듯 굶는 듯 넋는 듯 (송순, '면앙정가')

해석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동다(도타) : 좋다

예문

강촌(江村) 온갖 고지 먼 빛치 더욱 도타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으로 보니 더욱 좋다



몰다 : 마름질하다. 재단하다. 만들다.

예문

칼로 몰아 냐가, 붓으로 그려 냐가, (정극인, '상춘곡')

해석

칼로 마름질해 냐나, 붓으로 그려 냐나,



뒸다 : 움직이다.

예문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아니 뒸썻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해석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방송하다 : 내보내다. 석방하다.

예문

“서대주의 착한 마음을 본받아라” 하고 인하여 방송하니
(작자 미상, '서동지전')

해석

“서대주의 착한 마음을 본받아라” 하고 인하여 석방하니



벼기다 : 우기다. 모함하다.

예문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정서, '정과정')

해석

우기시던 이 누구십니까.



선희다 : 서운하다.

예문

선희면 아니 올세라 (고려 가요, '가시리')

해석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슬히 : 슬피. 슬프게.

예문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박인로, '누항사')

해석

내 가난 슬프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며



식어디다 : 사라지다

예문

노가디고 식어지여 혼백(魂魄)조차 훗터지고 (조위, '만분가')

해석

녹아지고 사라져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씩우다 : 꺼리다

예문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정극인, '상춘곡')

해석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잘다 : 짧다

예문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작자 미상, '귀도리 저 귀도리~')

해석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좋다(조타) : 맑다. 깨끗하다.

예문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정철, '관동별곡')

해석

맑거든 깨끗하지 말고 깨끗하거든 맑지 마라.

어리다 : 어리석다

예문

어리고 우환(迂闊)홀산 이 니 우히 더니 엇다. (박인로, '누항사')

해석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이 나보다 더한 이 없다.

어엿보다 : 불쌍하다

예문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정철, '사미인곡')

해석

불쌍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얼다 : 사랑하다. 육체적 사랑을 의미.

예문

선화공주니문 / 늣 그스지 얼어 두고 (서동, '서동요')

해석

선화공주님은 / 남 몰래 정을 통해 두고

외다 : 틀리다. 잘못되다.

예문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윤선도, '견회요')

해석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틀리다 하나

여희다 : 여의다. 이별하다.

예문

천만리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옵고 (왕방언, '천만리 머나먼 길히~')

해석

천만 리 머나먼 길에 고은 님과 이별하고

유세차 : 이 해의 차례는.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임.

예문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유씨부인, '조침문')

해석

이 해의 차례는 모년 모월 모일에

이슷하다 : 비슷하다.

예문

산 접동새 난 이슷호요이다 (정서, '정과정')

해석

산 접동새 나와 비슷하구나.

하다 : 많다.

예문

서 흙 밥 닛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박인로, '누항사')

해석

세 흙 밥 다섯 흙 죽에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하다 : 하다.

예문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 듯 말 듯 하구나.



현사하다 : 야단스럽다. 대단하다.

예문

어와 조화옹이 현사토 현사할샤 (정철, '관동별곡')

해석

아아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허다 : (악기, 불 등을) 켜다.

예문

사스미 퉁대에 올라서 히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작자 미상, '청산별곡')

해석

사슴이 퉁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4-3 부사

건듯 : 문득

예문

동풍(東風)이 건듯 부니 물결이 고이 난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동쪽에서 바람이 문득 부니 물결이 고요하게 일어난다.

고터 : 다시

예문

급당유(汲長孺) 풍치(風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정철, '관동별곡')

해석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아니 볼 것인가.

모쳐라 : 마침

예문

모쳐라 밤일식 만경 향여 닳이런들 늬 우일 번후패라.
(작자 미상, '님이 오마 흥거늘')

해석

마침 밤이기에 다행이지 행여 닳아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빚겨 : 비스듬히. (=빚기, 비겨)

예문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빚겨 안아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 비스듬히 안아

슬궂지 : 실컷. (=슬궂장, 쓸커시, 쓸커디)

예문

만경당파(萬頃澄波)의 슬궂지 용여(容與)후자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넓고 맑은 물에 실컷 즐겨 보자



수이 : 쉽게

예문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정철, '사미인곡')

해석

짧은 해 쉽게 끝나고 긴 밤을 고쳐 앓아



주로 : 자주

예문

구름 비치 조타 하나 검기물 주로 혼다 (윤선도, '오우가')

해석

구름 빛이 깨끗하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저근덧 : 잠깐 동안

예문

저근덧 밤이 드러 풍낭(風浪)이 덩(定)히거늘, (정철, '관동별곡')

해석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거늘



흐마 : 벌써

예문

흐마 밤 들거냐 주규(子規) 소리 맑게 난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벌써 밤이 되었는가 접동새 소리 맑게 난다.

4-4 조사, 어미

~곰 : 강조의 접미사.

예문

달하 노피곰 도다샤 /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해석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 아아 멀리멀리 비추어 주세요.

~고져 : ~하고 싶다.

예문

일이 도흔 세계(世界) 님대되 다 뵈고져. (정철, '관동별곡')

해석

이렇게 좋은 세계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나다 : ~느냐?

예문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구나.

~다호라 : ~같구나.

예문

이월(二月)스 보로매 / 아으 노피 현 등(燈)스블 다호라.
(작자 미상, '동동')

해석

2월의 보름에 / 아아 높이 켜 등불 같구나.

~다히 : ~의, ~쪽

예문

무등산(無等山) 혼 활기 뵈히 동다히로 버더 이셔 (송순, '면앙정가')

해석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도곤 : ~보다

예문

녀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흐려니. (정철, '관동별곡')

해석

여산이 여가보다 낫단 말 못하겠구나.



~르세라 : ~할까 두렵다

예문

어귀야 존테를 드려올세라.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해석

아아 진 데를 디달까 두렵습니다.



~쿠니와 : ~커녕

예문

사름은 쿠니와 놀새도 굿쳐 있다. (정철, '사미인곡')

해석

사람은커녕 나는 새도 끊어져 있다.



~손디 : ~에게 (=~이손디)

예문

뭇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홍랑, '뭇버들 갈히 것거~')

해석

뭇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우희 : (시간과 함께 쓰여) ~전에. (공간과 함께 쓰여) ~위에.

예문

구름 우희 나는 새야 네 아니 아뉘터냐 (조위, '만분가')

해석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너는 아니 알겠더냐



~하 : 높임의 호격 조사.

예문

달하 노피곰 도다샤 /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해석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 아아 멀리멀리 비추어 주세요.

4-5 자주 나오는 고사

① 유명한 임금

3황(황) 5제(제)

1. 삼황(三皇)

- 복희(伏羲): 인류의 시조로 여겨지며, 점괘(易卦)와 그물, 낚시 등의 기술을 발명했다.
- 신농(神農): 농업과 의학을 창시한 인물로, 농사법과 약초 사용을 전파했다.
- 여와(女媧): 인간을 빚어내고, 하늘이 무너질 때 이를 고친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

2. 오제(五帝)

- 황제(黃帝): 현원(軒轅)이라는 이름을 지닌 전 설적인 제왕으로, 의복, 수레, 문자 등을 창안하고 치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 전욱(顓頊): 황제(현원)의 손자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천지의 질서를 세운 인물이다.
- 제곡(帝嚳): 전욱의 후손으로, 음악과 종교 의식을 창시한 왕으로 묘사된다.
- 제요(帝堯): 덕망이 높은 군주로, 백성들에게 인자하게 다스려 이상적인 통치자 모델로 평가된다.
- 제순(帝舜): 요임금의 뒤를 이어 백성의 마음을 얻고 현명하게 통치한 성군으로, **요순**시대의 대표적인 군주이다.

3. 진시황(秦始皇)

진시황(기원전 259년~기원전 210년)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로, 본명은 영정(嬴政)이다. 그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기원전 221년에 6국을 평정하여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秦) 왕조를 세웠다. 그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확립하고, 도량형과 화폐, 문자를 통일하여 행정과 경제적 일원화를 이룩했다. 또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만리장성을 축조하여 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방어하려 했고, 전국적인 도로와 관개 시설을 정비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지만, 많은 백성에게 과도한 노동과 세금 부담을 안겨주어 후에 진 왕조의 붕괴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진시황의 또 다른 중요한 정책으로는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있다. 그는 법가 사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사상을 억압하고 유가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하였다. 이러한 강압적인 사상 통제는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큰 타격을 주었고, 후대에까지 논란을 일으켰다.

진시황은 영생을 추구하며 불로초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불사의 약을 찾아 수많은 방사(方士)들과 도사들을 동원했고, 그 중 서복(徐福, =서불)이라는 도사가 불로초를 찾아 탐험에 나선 것이 유명한 일화이다. 서복은 소년소녀 3,000명과 많은 보물, 60척의 배를 동원하여 동쪽 바다로 나아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참고로, 서복이 찾고자 했던 불로초는 단지 전설 속에 존재하는 삼신산(三神山)에 있는 약초로, 진시황은 이를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의 탐험을 지원했던 것이다.

또한, 진시황은 자신의 사후 세계를 대비하기 위해 거대한 무덤인 진시황릉을 건설했다. 이 무덤은 중국 시안(西安) 근처에 위치하며, 진시황의 병사와 말을 재현한 병마용(兵馬俑)이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병마용은 각 병사와 말이 실제 크기로 만들어져 당시의 예술적, 기술적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2 유명한 충신

1. 백이(伯夷), 숙제(叔齊)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 군주의 아들들로, 충절과 의리를 지킨 인물들로 전해진다.

백이와 숙제는 형제 사이였으나, 그들의 아버지가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을 때 숙제는 이를 형인 백이에게 양보하려 했다. 그러나 백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달아났고, 숙제 역시 왕위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결국, 그들은 상나라를 떠나 주나라의 서백에게 의탁하였다.

하지만, 서백이 죽고 주나라의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하려 하자, 두 사람은 "신하가 임금의 주살하려 하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나"며 이를 막으려 했다. 무왕은 그들을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의 간청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首陽山)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은거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주나라의 산에서 고사리를 캐어 먹는 것도 주나라의 은혜가 아니냐"며 비난하자, 결국 먹을 것을 모두 끊고 굶어 죽었다고 전해진다.

2. 강태공(姜太公)

강태공은 상나라 말기에서 주나라 초기의 전략가이자 정치가로, 주 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도와 상나라의 폭군 주왕(紂王)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강태공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일화는 "공은 낚싯바늘로 낚시를 하며 세월을 낚았다"는 이야기다. 그는 무려 70세가 될 때까지 관직에 나가지 않고, 낚시를 하며 천하의 때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사용했던 낚싯대는 공은 바늘에 미끼도 달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낚고 있다"고 대답하며,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결국 그는 주 문왕에게 발탁되어 주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강태공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아내와의 이야기다. 그가 출세하기 전에는 가난하게 낚시로 연명했고, 이 때문에 그의 아내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 하지만 강태공이 훗날 출세하자 그녀가 돌아왔고, 다시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강태공은 물을 바닥에 쏟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覆水不收)"며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한번 떠난 인연을 되돌릴 수 없음을 비유한 일화로, 후대에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이라는 고사성어로 남게 되었다.

3. 소부(巢父), 허유(許由)

소부와 허유는 중국 고대의 요순(堯舜) 시대에 활동한 전설적인 은자(隱者)들로, 숙세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청렴하게 살았던 인물들이다.

요임금(=앞서 얘기했던 제요(帝堯))은 나이가 들어 후계자를 물색하던 중, 허유가 인품이 고결하고 청렴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천하의 통치자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허유는 이러한 제안을 듣고는 이를 거절하며 "나는 작은 새가 숲에 집을 짓는 것처럼, 나무 몇 그루면 충분하다"고 비유하며 천하의 다스림을 사양했다. 허유는 이후 요임금의 제안을 들은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여 기산(箕山)의 영수(潁水) 강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친구였던 소부는 허유가 귀를 씻는 장면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허유가 왕위 제안을 들은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대답하자, 소부는 그를 비웃으며 "만약 진정으로 은자라면 애초에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허유가 씻은 물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여, 소부는 소에게 그 물을 먹이지 않고 상류로 올라가 물을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산영수(箕山潁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고, 고결한 은자의 삶을 상징하는 장소로 남아 있다.

3 유명한 악인

도적(盜跖)

도적은 중국 춘추시대의 악명 높은 도적으로, 천하를 휘저으며 악행을 저질렀던 인물이다.

그는 9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제후국을 습격하고 약탈하며, 수많은 사람을 해쳤다. 공자가 도적을 교화하려 시도했으나, 도적은 공자를 오히려 위선자로 취급하며 거부했다. 도적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부귀영화나 권력의 덧없음을 강조했다. 그의 일화는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천수를 누렸다는 점에서 논란을 남겼다.

4 유명한 의사

1. 편작(扁鵲)

편작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대표적인 명의로, 전통 중국 의학의 시조로 평가받는다.

편작은 곡(虢)나라를 지나던 중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궁에 찾아갔다. 다른사람들은 태자가 이미 숨이 끊어진 것으로 판단했으나, 편작은 태자의 귓속에서 소리가 나고 코가 벌름거린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침(施鍼, acupuncture)을 사용하여 태자의 주요 혈을 자극했고, 결국 태자를 소생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편작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로운 명의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편작은 제나라 환공을 보자마자 작은 병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즉각 치료를 권했다. 그러나 환공은 이를 무시했고, 병이 악화되자 편작이 세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치료를 거부했다. 마지막에는 이미 병이 깊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편작이 떠난 후, 환공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 일화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고사로 남아 있다.

2. 화타(華佗)

화타는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이다. 특히 뛰어난 의술과 외과 수술 기술로 유명하다. 이로 인해 화타는 후세 사람들에게 '신의(神醫)'로 칭송받는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삼국지 속 관우를 치료한 일화이다. 관우가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아 팔에 심각한 염증이 생기자, 화타는 관우의 팔을 절개하고 뼈에 박힌 독을 긁어내는 수술을 감행했다. 관우는 마취 없이 바둑을 두며 수술을 받았고, 태연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조조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조조가 심한 두통에 시달리자, 화타는 머리를 절개하여 치료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조는 이를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로 오해하여 화타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했다. 후에 조조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다.

5 유명한 풍류인

1. 이백(李白)

이백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자는 태백(太白)이다. 이백은 "시선(詩仙)"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당대의 최고의 시인으로 꼽혔으며, 지금도 두보와 함께 '이두(李杜)'로 불리며 중국 시문학의 쌍벽을 이룬다. 그의 시는 약 1,100여 수가 전해져 내려오며, 대부분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교 사상, 그리고 술과 인생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백에 관해서는 술을 좋아하고 자유로운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 자주 언급된다. 한 번은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와 함께 연회를 열고 이백을 초대하여 즉흥시를 지으라고 명령했다. 그때 이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놀랍게도 아름다운 시를 지어냈다. 이에 감탄한 현종이 그의 신발을 벗기도록 명령하였고, 권력자인 환관 고력사(高力士)가 이를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고력사는 이백에게 큰 원한을 품게 되었고, 결국 이백이 조정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한, 이백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도 재미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양자강(양쯔강)을 유람하던 중 물 위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자유롭고 낭만적인 삶을 반영한 흥미로운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2. 두보(杜甫)

두보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사람으로,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야로(少陵野老)이다. 그는 이백(李白)과 더불어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며, 후대에는 '시성(詩聖)'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두보의 작품들은 그의 삶과 그가 경험한 시대적 상황들을 반영하며, 특히 사회의 부조리와 백성들의 고통을 진중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의 시는 후대에 '시사(詩史)'라고 불리며, 시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백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두보는 이백의 시를 동경하고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눴으며, 나중에는 "몽이백(夢李白)"이라는 시를 지어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3. 동방삭(東方朔)

동방삭은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정치가이자 문인으로, 재치 있는 언변과 해학적인 행동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동방삭의 가장 잘 알려진 일화 중 하나는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이야기이다. 동방삭이 불사의 상징인 서왕모(西王母)가 키운 복숭아를 훔쳐 먹고 삼천갑자(18만 년) 동안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에서는 동방삭이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여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154년부터 기원전 93년까지 살았으므로, 환갑을 조금 넘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동방삭은 그 재치와 익살스러운 행동 덕분에 황제의 웃음을 자주 끌어내었고, 궁중에서도 종종 말상으로 불리곤 했다. 그가 받은 하사품이나 비단은 자주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스스로 탕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변에서는 그를 '반미치광이'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한무제는 그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면 어찌 너희들이 그의 위에 설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일화도 전해진다.

동방삭의 가장 잘 알려진 일화 중 하나는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이야기이다. 동방삭이 불사의 상징인 서왕모(西王母)가 키운 복숭아를 훔쳐 먹고 삼천갑자(18만 년) 동안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에서는 동방삭이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여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154년부터 기원전 93년까지 살았으므로, 환갑을 조금 넘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동방삭은 그 재치와 익살스러운 행동 덕분에 황제의 웃음을 자주 끌어내었고, 궁중에서도 종종 말상대로 불리곤 했다. 그가 받은 하사품이나 비단은 자주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스스로 탕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변에서는 그를 '반미치광이'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한무제는 그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면 어찌 너희들이 그의 위에 설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일화도 전해진다.

7 유명한 산

중국 오악(五嶽)

맹자의 기록에 따르면, 공자는 젊은 시절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겼고, 이후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고 한다. 이 일화는 공자가 더 높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 한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 동악 태산(東嶽 泰山)

- 위치: 산둥성 • 높이: 1,545m
- 특징: 태산은 중국의 오악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며, 역사적으로 많은 황제들이 이곳에서 봉선 의식을 거행했다. 진시황, 전한 무제도 이곳에서 의식을 진행하며 그들의 통치권을 신에게 인정받고자 했다. 도교와 유교 모두에서 신성한 산으로 숭배되었고, 오늘날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서악 화산(西嶽 華山)

- 위치: 산시성(섬서성) • 높이: 1,997m
- 특징: 화산은 험준한 산세로 유명하며,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섯 개의 봉우리가 마치 꽃처럼 솟아 있어 "화산(花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도교의 수행지로도 알려져 있다.

3. 남악 형산(南嶽 衡山)

- 위치: 후난성 • 높이: 1,290m
- 특징: 형산은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다. 도교와 불교의 사찰들이 밀집해 있으며, 특히 고대부터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형산을 방문하여 시를 남긴 곳이기도 하다.

4. 북악 향산(北嶽 恒山)

- 위치: 산서성 • 높이: 2,017m
- 특징: 향산은 북방의 험준한 요새 역할을 했던 산으로, 군사적 요충지로 자주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명소로 절벽에 걸쳐 세운 현공사(懸空寺)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10대 불가사의 건축물로도 꼽힌다.

5. 중악 송산(中嶽 嵩山)

- 위치: 허난성 • 높이: 1,494m
- 특징: 송산은 중국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산이다. 이곳은 유교, 불교, 도교의 교류지이자 소림사가 있는 곳으로, 중국 무술의 본산으로 유명하다. 또한,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되었다.

6 도교

1. 도연명(陶淵明)

도연명은 중국 동진 후기에서 남조 송대 초기까지 활동한 전원시인이자 은일(隱逸)의 상징적 인물이다.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관직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 속에서 자족적이고 초연한 삶을 살았다. 그의 대표작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는 이상향을 묘사하며, 후세에 **지상 낙원(이상향)**의 전형을 제시했다.

또한 술을 매우 좋아하여 “편마다 술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그는 술을 마시며, 마치 신선이 된 듯하여 자연을 즐기며 작품을 창작했다.

이러한 도연명의 작품은 자연과의 조화, 자아 성찰,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며 많은 후대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 무릉도원(武陵桃源)

무릉도원은 도연명의 작품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등장하는 이상향으로, 세속의 고통과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을 묘사한 공간이다. 이 이야기는 한 어부가 무릉 지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도화(복숭아꽃)**가 만발한 계곡을 발견하며 시작된다. 어부는 호기심에 계곡의 끝으로 향하다가 좁은 터널을 지나게 되고, 그 끝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나게 된다. 이 마을 사람들은 진나라(秦) 시절 전란을 피해 이곳에 숨어 들어온 후,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 그곳의 사람들은 외부의 역사나 정치적 변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오직 평화롭고 풍족한 이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부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마을을 떠나기 전 주민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어부는 돌아가는 길에 표시를 남기며 관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사람들을 보내 그곳을 찾으려 했으나 끝내 무릉도원을 다시 발견하지 못했다.

3. 약수(弱水)

약수(弱水)는 중국 설화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 건너야 하는 전설의 강이다. 도교에서는 불사의 장소로 여겨지는 **곤륜산(崑崙山)**을 둘러싸고 있다고 전해진다. 약수는 매우 강한 물살을 지니고 있어, 새털 하나조차도 쉽게 떠내려 보낼 만큼 유속이 세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람이나 물건이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묘사가 붙게 되었다. 이는 도교와 신화에서 약수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경계선, 즉 신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나누는 상징적인 장벽으로 여겨지게 된 이유이다.

4. 신선 사상

도교의 신선 사상은 인간이 도를 닦고 자연과 하나 되면, 죽음을 초월한 존재인 ‘신선(神仙)’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도교의 신선사상에서는 단순한 수행뿐만 아니라 술이나 약(단약)을 통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고대 중국에서는 신선이 마신다는 특별한 술이나 신비로운 약을 만들어 마시며 불로불사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8 유교

1. 성선설

맹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간에게는 네 가지 선한 마음의 싹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수오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지심’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마음은 각각 인(仁), 의(義), 예(禮), 지(智)라는 완성된 덕목으로 자라날 수 있으며, 이는 누구나 지닌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맹자는 강조했다. 따라서 인간이 악하게 되는 것은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과 교육**의 영향 때문이며, 올바른 **교육과 수양**을 통해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충효

유학자들이 강조한 충효 사상은 유교 윤리의 핵심으로, 사람 사이의 도리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충(忠)’은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뜻하는데,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유학에서의 충은 정치를 바르게 하고 군주에게 간언할 줄 아는 **정의로운 자세**로 이해된다. 한편 **‘효(孝)’**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의미하며, 인간의 도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으로 여겨진다. 효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예절을 갖추어 섬기는 것**을 뜻한다. 유학자들은 효를 사람됨의 근본으로 보았고, 모든 덕행의 시작이자 사회 질서의 출발점으로 간주했다. 이처럼 유학에서는 가정에서의 효가 사회로 확대되어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가정을 다스리는 도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효로써 집안을 다스리고, 충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처럼 충과 효는 개인의 수양에서부터 국가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유교적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였다.

3. 사군자

사군자는 동양 회화와 문학에서 고결한 인격과 절개를 상징하는 네 가지 식물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가리킨다. 이들은 각기 다른 계절에 피어나거나 상징성을 지니며, 선비의 기품과 정신을 나타내는 존재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다.

매화는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이다. 눈 속에서도 곳곳이 피는 그 모습은 추위를 견디는 인내와 고고한 절개를 상징한다. 다른 꽃들이 움츠릴 때 혼자 피어나기에 더욱 돋보이며, 외롭지만 당당한 선비의 삶을 닮았다.

난초는 깊은 산속 그늘진 곳에서 자라며, 강한 향을 뿜지 않고 은은하고 맑은 향기를 품는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지만 향기로움을 간직한 난초는 겸손하면서도 고결한 인품을 상징한다. 유학자들은 특히 난초를 군자의 인품에 비유하여 숨어 있어도 절로 향기 나는 존재로 여겼다.

국화는 늦가을, 찬 서리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홀로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추위에 지지 않고 늦게 피어나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더하는 국화는 고독 속에서도 자기 길을 묵묵히 걷는 선비의 삶을 닮았다. 또한 속세에 물들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 사는 은자의 상징으로 자주 묘사된다.

대나무는 사시사철 늘 푸른 빛을 유지하고, 곧고 속이 비어 있어 겸허하고 바른 인격을 상징한다. 바람에도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유연한 강직함과 텅 빈 속은 마음을 비우고 도리를 지키는 자세를 나타낸다. 때로는 **소나무**도 이에 비견되는데, 겉보기에 울곧음과 동시에,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으로 인해, 그 절개와 강인함은 군자의 마음가짐을 상징한다.

4. 주자(朱子)

주자는 본명이 주희(朱熹)로, 중국 남송(南宋) 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성리학(性理學)의 집대성자이다.

주자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유학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기론(理氣論)'이라는 사상적 개념을 통해 우주론과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려 했다.

무이산(武夷山)은 중국 명산으로, 주자(朱子)가 만년에 은거하며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다.

5. 단표누항(簞瓢陋巷)

단표누항은 공자가 그의 제자 안회(顏回)의 생활을 칭찬하며 언급한 표현으로, 《논어(論語)》에 등장한다.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그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도를 즐기며 학문에 전념하는 안회의 태도를 높이 평가한 표현이다.



Part 2.

작품



Chapter 1.

시조/가사

Theme 1.

유교적 사상



check!

필수 배경지식

① 유교적 사상

1. 사군자 = 충성을 상징

매화(梅花) : 겨울~초봄에 혼자 피.

난초(蘭草) : 은은한 향기

국화(菊花) : 가을에 혼자 피

대나무(竹) + 소나무(松) : 사계절 푸름, 곧음

2. 부모님 = 임금님

3. 남녀간의 사랑 = 임금님에 대한 사랑

평시조 및 사설시조

충

- 01 이정보 - 국화야 너는 어이~
- 02 원천석 - 눈 무자 휘여진 디를~
- 03 왕방연 -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 04 성삼문 - 수양산 바라보며~
- 05 이개 - 방 안에 헛는 촉불~

효

- 06 박효관 - 뉘라서 가마귀를~

기타

- 07 변계량 - 내해 도타 하고~

1 이정보 - 국화야 너는 어이~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는다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해석

국화야 너는 어찌 삼월 봄바람 다 지내고
나뭇잎 다 떨어진 추운 날씨에 너 혼자 피었는가.
아마도 서리의 차가움에도 굴하지 않는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국화가 홀로 핀 모습을 보고 국화에게 묻고 있다.	국화의 절개를 예찬하며 자신 또한 절개를 지킬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중장		
종장	국화가 가진 절개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3 주제

국화의 절개에 대한 예찬

4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국화는 사군자 중 하나로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시적 제재로 자주 다루어진다.
이정보는 조선 영조 때의 충신으로 높은 벼슬을 지냈으면서도 지조를 지켰다고 한다.
국화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이 평시조는 작가 스스로 국화와 같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군자로서의 삶에 대해 결의를 다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의인화
사군자 중 하나인 국화를 의인화하여 국화의 고절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며 자신의 신념을 다지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높은 절개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방 안에 헛는 촉불~〉, 〈눈무자 휘여진 뒤를~〉

7 기출문제

2015학년도 6월 A

2 원천석 - 눈 무자 휘어진 디를~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눈 무자 휘어진 디를 뉘라셔 굽다턴코
구불 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나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 쉰인가 하노라

해석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를 리 있는가
아마도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겨울에 눈을 맞은 대나무가 휘어 있지만 화자는 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며 자신 또한 절개를 지킬 것 임을 다짐하고 있다.
중장 대나무는 눈 속에서도 푸른 빛을 띠기 때문에 절개가 굽지 않았다.	
종장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대나무의 높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③ 주제

대나무의 절개에 대한 예찬

④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고려의 유신이었던 원천석은 고려가 멸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원주 치악산에 숨어 살아갔다.
새 왕조에 협력하라는 외부의 압박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끝내 벼슬을 하지 않았다.
결코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자신의 절개를 대나무에 빗대어 드러낸 작품으로써,
자신 또한 대나무와 같이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의인법
사군자 중 하나인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대나무의 굳은 절개에 대해 예찬하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설의법
'뉘라셔 굶다턴고', '눈 속의 프를소냐'와 같이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높은 절개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방 안에 헛는 촉불~〉, 〈국화야 너는 어이~〉

3 왕방연 –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님 여히고
 님 막음 돌덩 얹서 냇그 의 안자시니
 저 물도 님은 고향여 우리 밤길 네놓다

해석

천만 리 머나먼 길에 고운 임과 이별하고
 내 마음 돌 데 없어 냇가에 앉아 있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며 밤길 흘러 가는구나.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임과 이별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과 이별하여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
중장	슬픔에 젖어 냇가에 앉아 있다.	
종장	물이 흐르는 모습이 자신의 심정과 같이 울며 흐르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3 주제

임금과 이별한 슬픔

4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세조는 어린 단종에게 누명을 씌워 왕위를 빼앗고 영월로 유배시켰다.
 왕방연은 어린 단종을 유배지까지 호송하였다.
 이 작품은 단종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은 작품이라고 한다.
 자신이 모시던 임금을 유배지에 홀로 두고 돌아오는 왕방연의 비통한 심정이 이 시에 잘 드러나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감정이입
넋가의 흐르는 물이 울며 흐른다고 표현하여 자신의 슬픈 감정을 투영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한 〈귀뚜리 저 귀뚜리~〉, 〈방 안에 헛는 축불〉

7 기출문제

2014학년도 수능

4 성삼문 - 수양산 바라보며~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採薇)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엿 것인들 괴 뉘 따헤 낫다니.

해석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 먹어서 되겠는가.
비록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떠올리고 한탄한다.	백이와 숙제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며 자신은 굳은 절개를 지킬 것임을 드러낸다.
중장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 땅에서 난 것은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굶어 죽지 않고 고사리를 뜯어 먹은 것을 비판한다.	
종장	보잘것없는 음식일지라도 결국 주나라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3 주제

임금에 대한 충정

4 배경지식

* 고사 인용

-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이제(夷齊): 백이와 숙제의 고사.

상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상나라에 대한 충절을 지켰으며 주나라의 녹봉을 받을 수 없다며 수양산을 들어가 고사리를 캐 연명했다. 하지만 왕미자라는 사람이 '그대들은 주나라의 녹봉을 받을 수 없다더니

주나라의 산에서 나는 고사리를 먹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탓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고사리마저 먹지 않아 굶어 죽고 만다.

* 문학사적 의의

성삼문은 조선 전기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처형된 사육신 중 한 명이다.

성삼문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이후부터는 세조로부터 받은 녹봉을 창고에 쌓아 두고 전혀 건드리지 않거나, 방바닥에 거적자리만 깔고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 시조는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며 자신은 굶어 죽을지언정 임금에 대한 충정을 지키리라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설의법

'~는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높은 절개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국화야 너는 어이~〉, 〈눈 무자 휘여진 뒤를~〉

5 이개 - 방 안에 헛는 족불~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방 안에 헛는 족불 놀과 이별하엿관대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로는고
더 족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로도다

해석

방 안에 켜 족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걸으로 눈물 떨어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우리도 저 족불 같아 속 타는 줄 모르노라.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족불을 보고 이별한 상황을 떠올린다.	이별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중장	족불이 타는 모습을 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표현한다.	
종장	자신의 마음 또한 족불과 같다고 한다.	

3 주제

이별로 인한 애타는 마음

4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이개는 단종 때의 신하로 사육신 중 한 명이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어린 임금 단종이 유배되어 임금과 이별하자,
억울한 임금의 유배에 대한 슬픔과 임금에 대한 충절을 나타내는 이 시조를 창작하였다.

5 표현상의 특징

- 감정이입

‘촛불’에 감정을 이입하여 촛불이 타는 모습을 슬퍼서 우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한 〈귀뚜리 저 귀뚜리~〉,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6 박효관 - 뉘라서 까마귀를~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흥(凶)타 하듯던고.
반포보은(反哺報恩)이 괴 아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허하노라.

해석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하였던가.
반포보은(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보답함)하니 그것이 아름답지 아니한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사람들은 까마귀가 검고 흉하다고 하지만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까마귀와 같은 효심을 가지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중장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보답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긴다.	
종장	사람들이 까마귀만 못한 것에 슬퍼한다.	

3 주제

효를 잃은 세태에 대한 비판

4 배경지식

* 사자성어

반포보은(反哺報恩): 돌이킬 반, 먹일 포, 갚을 보, 은혜 은.
직역하면 입 안에 머금은 것을 다시 먹여 은혜를 갚는다는 뜻.
까마귀는 색이 검고 울음소리가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예로부터 흉조로 여겨졌다.
그러나 까마귀는 자라면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돌보는 습성이 있다.
이것을 자신을 키워 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 행동으로 보고, 까마귀를 효도하는 새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5 표현상의 특징

- 설의법
'~던고', '~ㄴ가'와 같은 의문형 어미로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효'의 가치를 중시한 〈조흥시가〉

7 변계량 - 내해 도타 하고~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내해 도타 하고 남 슬흔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의 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는 천성을 직히여 삼긴 대로 하리라

해석

내게 좋다고 해도 남에게 싫은 일이면 하지 말며
남이 한다고 해도 의로운 일 아니면 좇지 마라.
우리는 천성을 지켜 타고난 대로 하리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자신에게 좋다고 해도 남에게 싫은 일이면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훈적인 태도로 의로운 천성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중장	남이 한다고 해도 의로운 일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장	천성을 지키며 타고 난 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③ 주제

의로운 천성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

④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변계량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 시대의 문인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당대의 유교적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초장에서는 자공이 공자에게 평생 해야 할 일을 가르쳐달라고 물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한 사상을 옮긴 것이다. 중장에서는 공자의 입신유의, 즉 몸을 바로세우는 데 의로움이 필요하다고 한 사상이 담겨 있다. 종장에서는 선한 천성을 지키고자 하는 유학자의 면모가 드러난다.

5 표현상의 특징

- 대구법
초장과 중장이 서로 대응되어 운율을 형성한다.

6 같이 볼 작품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창작된 〈훈민가〉

스스로 정리하기



연시조

교훈(충, 효)

08 안민영 – 매화사(梅花詞)

09 박인로 – 조흥시가

1 원문/해석

원문

매화사

〈제1수〉

매영(梅影)이 부딪친 창에 옥인금어(玉人金馭) 비겨신겨
이삼(二三) 백발옹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랴 저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3수〉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6수〉

보름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리 주는 매화(梅花)를 침노(侵勞)하니
아무리 어루러허인들 봄 뜻이야 아슬소냐

〈제8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건곤이 눈이어늘 제 엇지 감히 피리
알패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이 매화 밖에 뉘 이시리

해석

매화의 곡조

〈제1수〉

매화 그림자가 부딪친 창에 미인의 금비녀 비껴 있다.
두세 명 백발의 노인은 거문고와 노래로 풍류를 즐긴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 때 저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3수〉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성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저녁달을 기약하니
아마도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제6수〉

바람이 눈을 몰아 산장의 창문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범하니
아무리 열게 하려고 한들 봄 뜻이야 앗을수 있겠는가.

〈제8수〉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온 세상이 눈인데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겠구나 흰 눈 날리는 이른 봄은 매화밖에 누가 있으리.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매화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정서와 태도

매화의 특성을 예찬하고 있다.

③ 주제

겨울 매화에 대한 예찬

④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어리고 성권 가지(柯枝)** 너를 밋지 안얏더니,
성권(성기다): 성기다. 물건과 물건 사이의 간격이 촘촘하지 않고 서로 멀다.
- **건곤이 눈이어늘 제 엇지 감히 피리**
건곤: 온 세상. 천지.

* 문학사적 의의

안민영의 〈매화사〉는 사군자(매난국죽) 중 하나인 매화의 성질을 예찬하고 있다.
안민영은 박효관과 함께 〈가곡원류〉를 편찬하며 시조 문학을 정리한 가객으로, 그의 〈매화사〉는 사군자를 소재로 하는 연시조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진다. 눈과 매화의 대비를 통해 매화의 지조를 부각하고 관습적 상징의 의미를 다양한 심상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⑤ 표현상의 특징

- 관습적 상징물
: 지조와 절개의 관습적 상징물인 '매화'를 제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 의인법
: 매화를 의인화하여 지향해야 할 인간상을 표현하였다.

6 같이 볼 작품

관습적 상징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신익의 〈단가육장〉

7 기출문제

2014학년도 9월 / 2007학년도 6월

1 원문/해석

원문

〈제1수〉

반중(盤中) 조흥(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으세 글로 설워하나이다.

〈제2수〉

왕상(王祥)의 잉어잡고 맹종(孟宗)의 죽순꺾어
검은머리 희도록 노래자(老萊子)의 옷을 입고
일생에 양지성효(養志誠孝)를 증자(曾子)같이 하리라.

〈제3수〉

만균(萬鈞)을 늘려 내어 길게 길게 노를 꼬아
구만 리 강천에 가는 해를 잡아내어
북당(北堂)의 학발쌍친(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하리이다.

〈제4수〉

군봉(群峯) 모인 곳에 외가마귀 들어오니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같다마는
봉황(鳳凰)도 비조(飛鳥)와 유(類)이시니 뵈셔논들 어찌하리.

해석

〈제1수〉

소반 가운데 놓인 일찍 익은 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 갈 만 하다마는
품어가도 반길 이 없으니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제2수〉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을 꺾어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에 뜻을 길러 효성을 다하는 것을 증자같이 하리라.

〈제3수〉

만 개의 무거운 쇳덩이를 늘려 내어 길게 길게 끈을 꼬아
구만 리 강천에 가는 해를 잡아내어
안방의 머리 흰 늙은 부모를 천천히 늙게 하리라.

〈제4수〉

봉황 무리 모인 곳에 까마귀 한 마리 들어오니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같다만
봉황도 나는 새이니 (까마귀가 봉황을) 모시고 함께 논다 한들
어찌.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제 1수	육적회굴의 고사를 인용하여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만나지 못하는 서러움을 드러낸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애상적 태도가 드러난다.
제 2수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와 같은 중국의 유명한 효자를 열거하며 그들과 같이 효도하리라는 의지를 드러낸다.	효도에 대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제 3수	과장된 표현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부모님이 천천히 늙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부모님이 천천히 늙는 것에 대한 소망이 드러난다.
제 4수	봉황과 까마귀가 같은 나는 새의 일종이니 함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화자 자신이 훌륭한 벗들과 사귀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

3 주제

효에 대한 강조

4 배경지식

* 고사 인용

•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갈 만 하다마는

유자: 육적회굴(陸績懷橘) 고사.

중국 후한 때 여섯 살 난 육적이 친구 원술의 집에 갔을 때 먹으라고 내놓은 귤을 가슴에 몰래 품었다.

그러나 돌아갈 때 인사를 하다가 흘러 나와 들키고 만다.

원술이 그 이유를 묻자 집에 계신 어머니께 드리려 숨겼다고 하자, 모두 그 효심에 감동했다는 고사이다.

• 왕상(王祥)의 잉어잡고 맹종(孟宗)의 죽순꺾어

- 왕상: 중국의 유명한 효자 중 한 명. 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 어머니께 대접했다고 한다.

- 맹종: 삼국 시대 오나라의 효자 중 한 명. 겨울에 죽순을 얻어다 어머니께 대접했다고 한다.

• 검은머리 희도록 노래자(老萊子)의 옷을 입고

노래자: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의 유명한 효자 중 한 명.

70세의 나이에 어린 아이 옷을 입고 재롱을 피워 늙은 부모를 기쁘게 해 드렸다고 한다.

• 일생에 양지성효(養志誠孝)를 증자(曾子)같이 하리라

증자: 중국 춘추 시대 공자의 제자, 효자로 알려져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감각적 이미지
: 제1수의 초장에서 시각적, 중장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과장법
: 제3수에서 '만균'으로 만든 끈으로 '구만 리' 가는 해를 잡아내고 싶다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부모의 늙음을 막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다.
- 은유, 대조
: 제4수에서 '봉황', '백옥'을 훌륭한 벼에 비유하고, '외가마귀', '돌'을 화자 자신에 비유한다. 훌륭한 벼와 화자 자신을 대조하여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효에 대해 노래한 연시조 <견회요>

Theme 2.

강호한정



1 자연과 속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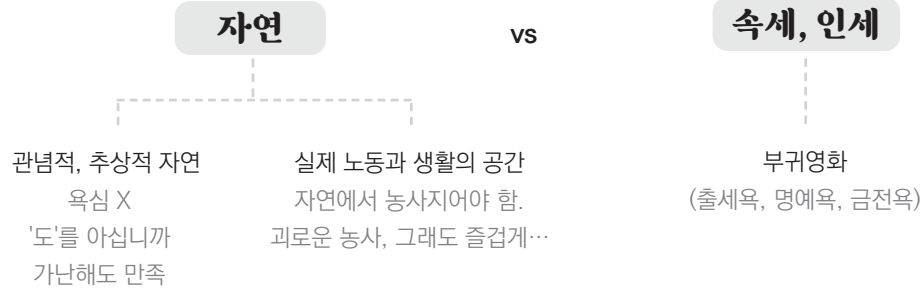
	자연	속세
추구하는 가치	• 강호한정, 자연친화	• 부귀영화, 부귀공명, 입신양명(충, 효)
정서/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감, 우월함&자부심 ex) 강호한정, 임천한흥, 천석고황, 연하고질, 유유자적, 풍월주인 • (가끔씩) 고뇌 → 임금 or 자연 • (가끔씩) 가난해서 괴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족감, 열등감&어쩔 수 없이 하는 • (가끔씩) 지향
표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물+자연물 ex) 강산(江山), 강천(江天), 강호(江湖), 녹수(綠水), 도화(桃花), 명월(明月), 백운(白雲), 백일유성(白日幽星), 산림(山林), 산수(山水), 산천(山川), 연봉(巒峰), 연운(煙雲), 연하(烟霞), 임천(林泉), 청류낙안(清流樂安), 청산(靑山), 청풍명월(淸風明月), 초야(草野), 죽림(竹林), 풍류(風流), 풍월(風月), 호수(湖水) • 어부의 삶 ex) 어옹(魚翁) • 욕심 없는 삶 ex) 안빈낙도(安貧樂道), 빈이무원(貧而無怨), 안분지족(安分知足), 단사표음(簞食瓢飮), 단표누항(簞瓢陋巷), 무심어조(無心於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뇌의 장소 : 홍진(紅塵), 풍진(風塵), 진세(塵世), 사바(娑婆), • 정치적 장소 : 장안(長安), 북궐(北闕), 남산(南山) • 천상계 장소 :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광한전(廣寒殿)

2 도교적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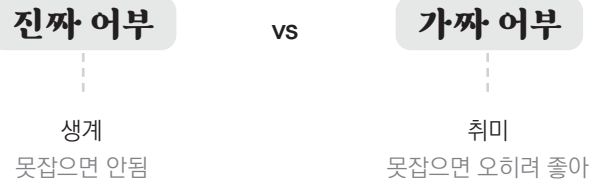
- 도화, 낙홍 → 무릉도원
- 술 → 풍류 → 신선 (cf. 시름을 해소하는 수단)

3 고전시가에서의 자연과 어부

• 고전시가에서의 자연



• 고전시가에서의 어부



4 임금님 계신곳

1. 장안(長安)

임금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말로 서울을 의미한다.

2. 북궐(北闕)

임금이 머무는 궁궐을 의미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여러 궁궐 중 경복궁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참고로 논어에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말이 있어 북쪽은 왕을 상징하는 방위이다.

3. 광한전(廣寒殿)

광한전은 중국 고대 신화에서 달 속의 궁전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선계(仙界)와 관련된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은 중국 전설에서 옥황상제나 서왕모 같은 신성한 존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확대해서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도 해석한다.

4. 백옥경(白玉京, 백옥루)

백옥경은 도교 및 중국 고대 신화에서 하늘의 중심에 위치한 궁궐로,

옥황상제와 같은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이름 자체가 '하늘 위의 하얀 옥으로 지어진 궁전'이라는 뜻을 지니며 백옥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을 상징하기도 한다.

확대해서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도 해석한다.

평시조 및 사설시조

- 10 송순 - 십 년을 경영하여~
- 11 조식 - 두류산 양단수를~
- 12 한호 - 짚방석 내지 마라~
- 13 김천택 - 백구야 말 물어 보자~

10 송순 - 십 년을 경영하여~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 三間) 지내여니
나 한 간(間)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間) 맞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해석

십 년을 살면서 초가 삼간 지어 났으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맑은 바람 한 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곳이 없으니 돌려 두고 보리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십 년을 살며 초가삼간(작은 집)을 지어 났다.	자연과 하나되는 물아일체,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난다.
중장	그 집에 자신, 달, 맑은 바람을 들이겠다고 한다.	
종장	자연은 들일 곳이 없어 돌려 두고 보겠다고 다짐 한다.	

③ 주제

초가 삼간에서 자연과 벗하며 안빈낙도하는 삶

④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송순은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강호한정의 가사를 지어 노래한 조선 전기의 대표적 문인이다.
담양 제월봉 아래 면양정을 짓고, 그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대표작 '면양정가'를 지었다.

5 표현상의 특징

- 시선의 이동
화자의 시선이 근경(초려 삼간)에서 원경(강산)으로 이동한다.

6 같이 볼 작품

같은 작가의 대표작 〈면앙정가〉

11 조식 - 두류산 양단수를~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頭流山(두류산) 兩端水(양단수)를 네 듯고 이제 보니,
桃花(도화) 뜬 맑은 물에 山影(산영)조차 잠겼세라.
아희야 武陵(무릉)이 어디오 나는 옌가 하노라.

해석

지리산 양단수를 옛날에 듣기만 하고 이제 보니,
복숭아 꽃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조차 잠겨 있구나.
아이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지리산 양단수를 듣기만 하고 처음 보았다.	지리산 양단수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며 감탄하고 있다.
중장 양단수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종장 양단수의 아름다움을 무릉도원에 비유하고 있다.	

③ 주제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

④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조식은 산림학파의 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관직의 부름을 거절하고 지리산 덕소동에 살며 사색과 연구에 전념하였다.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에 귀의한 삶에 대해,
자신이 지내는 지리산을 무릉도원에 비유하며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은유법
화자가 보고 있는 지리산 양단수의 풍경을 무릉도원에 은유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구체적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면앙정가〉

12 한호 - 짚방석 내지 마라~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앉으라.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아해야 박주산채(薄酒山菜)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해석

짚 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라.
관술 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아이야 변변찮은 술과 나물일지라도 좋으니 없다 말고 내어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짚방석 대신 낙엽에 앉겠다고 한다.	산촌 속에서 안빈낙도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중장	술불 대신 달빛으로 밝히겠다고 한다.	
종장	아이에게 술과 나물을 내어 올 것을 청하고 있다.	

③ 주제

산촌 속에서 안빈낙도하며 즐기는 풍류

④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한호는 추사 김정희와 더불어 한국의 가장 저명한 서예가 중 한 명이다.
중국 필법을 모방하던 서체에서 벗어나 호쾌하고 강건한 필법을 주도했다.
이 시조에서 또한 인공물을 멀리하고 자연물을 가까이 하며 풍류를 즐기는 그의 호방한 면모가 드러난다.

5 표현상의 특징

- 대조
인공물(짚방석, 솔불)과 자연물(낙엽, 달빛)의 대조를 통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안빈낙도하는 삶의 모습을 그린 〈어부단가〉

13 김천택 - 백구야 말 물어 보자~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백구(白鷗)야 말 물어 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명구 승지(名區勝地)를 어디 어디 보았는다.
날다려 자세히 일러든 너와 게 가 놀리라.

해석

갈매기야 말 물어 보자 놀라지 말아라.
경치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을 어디 어디 보았느냐?
나에게 자세히 말해 주면 너와 게 가 놀리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갈매기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노닐고 싶은 태도가 드러난다.
중장 갈매기에게 경치가 뛰어난 곳 어디를 가 보았는지 묻고 있다.	
종장 갈매기와 함께 그곳에서 놀고 싶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③ 주제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마음

④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김천택은 조선 후기의 가객이다. 중인계층 출신으로 잠시 관직생활을 하다가 거의 일평생을 가객으로 지낸 것으로 짐작된다. 생전에 약 80수의 시조 작품을 창작하였다.

5 표현상의 특징

- 의인화
'백구'를 의인화하여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자연 속에서 물아일체를 느끼는 〈누항사〉

스스로 정리하기



연시조

- 14 맹사성 - 강호사시가 (江湖四時歌)
- 15 이현보 - 어부단가(漁父短歌)
- 16 윤선도 -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17 윤선도 - 만흥(漫興)
- 18 이황 -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
- 19 이이 -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20 권호문 -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14 맹사성 - 강호사시가 (江湖四時歌)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강호사시가

〈제1수〉

江湖(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흥)이 절로 난다.

탁료 계변에 錦鱗魚(금린어) | 안쥐로다.

이 몸이 閒暇(한가)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제2수〉

江湖(강호)에 녀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업다.

有信(유신)한 江波(강파)난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날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제3수〉

江湖(강호)에 가알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小艇(소정)에 그물 시러 흘니 띄여 더져 두고.

이 몸이 消日(소일)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제4수〉

江湖(강호)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해석

자연의 사계절 노래

〈제1수〉

자연에 봄이 찾아오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막걸리 시냇가에서 마시니 쓰가리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함도 모두 임금의 은혜로다.

〈제2수〉

자연에 여름이 찾아오니 초가집에 할 일이 없다.

신의 있는 강의 물결이 보내는 것이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함도 모두 임금의 은혜로다.

〈제3수〉

자연에 가을이 찾아오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작은 배에 그물 실어 흐르게 던져 두고

이 몸이 여유로움도 모두 임금의 은혜로다.

〈제4수〉

자연에 겨월이 찾아오니 눈 깊이 한 자(약 30cm)가 넘는다.

삿갓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함도 모두 임금의 은혜로다.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보내며 흥취를 즐기고 있다.	자연과의 합일과 조화를 추구하는 자연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자연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살면서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연군지정을 드러낸다.

3 주제

자연의 사계절에서 느끼는 풍류와 연군지정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江湖(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興(흥)이 절로 난다.
강호: 자연.
- 이 몸이 閒暇(한가)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역군은이샀다: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충신연주지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 이 몸이 消日(소일)해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소일하다: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냄. 여유로움.

* 문학사적 의의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연군지정을 드러내는 강호가도류 작품의 시초이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총 4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형식적으로 유사한 구성을 띠고 있다. 초장에서 계절을 명시하고, 중장에서 계절을 상징하는 특정한 사물을 드러내며, 종장에서 계절에 대한 화자의 풍류적 삶의 감상과 임금에 대한 감사가 드러난다. 구조의 통일을 통해 자연의 변함없음과 임금의 끝없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 각 수에서 봄, 여름, 겨울, 가을의 풍경을 묘사하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형식적 통일성
: 각 수의 구조가 '강호에 ~이 드니'로 시작하여 계절별 생활상과 흥취로 이어지고 '역군은이샷다'로 마무리하는 형식 일성을 가지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작품,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7 기출문제

2016학년도 수능 A

15 이현보 – 어부단가(漁父短歌)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어부단가

이 등에 시름 업스니 漁父(어부)의 生涯(생애)이로다.
一葉片舟(일엽편주)를 萬頃波(만경파)에 띄워 두고,
人世(인세)를 다 니졌거니 날 가는 주를 안가.

구버는 千尋綠水(천심녹수) 도라보니 萬疊青山(만첩청산)
十丈紅塵(십장홍진)이 언제나 7렷노고,
江湖(강호)에 月白(월백)히거든 더욱 無心(무심)히애라.

靑荷(청하)에 바볼 뵈고 綠柳(녹류)에 고기 빼여
蘆荻花叢(노적 화층)에 비 미야 두고
一般淸意味(일반청의미)를 어니 부니 아리실고.

山頭(산두)에 閑雲(한운)이 起(기)히고 水中(수중)에
白鷗(백구)이 飛(비)이라.
無心(무심)코 多情(다정)하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일생)애 시르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長安(장안)을 도라보니 北闕(북궐)이 千里(천리)로다.
漁舟(어주)에 누어신돌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제세현)이 업스랴.

해석

어부의 짧은 노래

이 중에 걱정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나뭇잎과 같이 작은 배를 파도치는 넓은 강에 띄워 두고
속세를 다 잊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굽어보면 깊고 푸른 물 돌아보면 첩첩이 쌓여 있는 푸른 산
속세가 얼마나 가렸는가.
자연에 달이 환하게 뜨니 더욱 무심하구나.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고기 꿰어
갈대와 억새풀 우거진 곳에 배 매어 두고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알으실까.

산머리에 구름이 일고 물 위로 갈매기 나는구나.
무심하고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애 걱정을 잊고 너희를 쫓아 놀리라.

속세를 돌아보니 북궐(임금 계신 궁궐)이 천 리로다.
고깃배에 누워 있는들 잊은 적이 없다.
두어라 내 걱정 아니다. 세상을 구할 현명한 선비가 없으랴.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제1~4수	어부의 삶으로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	한가로운 어부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다.
제5수	사대부로서 조정에 대해 근심하고 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3 주제

강호를 즐기는 어부의 삶에서 드러나는 안빈낙도와, 현인의 출현을 기대하는 우국지정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江湖(강호)애 月白(월백)허거든 더욱 無心(무심)허애라.
無心(무심): 욕심이 없음. 속세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음. 자연친화적 태도를 의미.
- 長安(장안)을 도라보니 北關(북궐)이 千里(천리)로다.
長安(장안): 한나라의 수도. 여기에서는 임금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말로 서울을 의미함.
北關(북궐): 왕이 머무는 곳. 논어에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말이 있어 북쪽은 왕을 상징하는 방위가 됨. 특히 조선시대에는 여러 궁궐 중 경복궁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 문학사적 의의

이현보의 〈어부단가〉는 강호가도를 노래한 대표적인 연시조로 고려 때부터 전해오던 〈어부가〉를 개작한 것이다. '가어옹(加魚翁)'으로서 자연 속을 거닐면서도 임금이 머무는 북궐(北關)을 돌아본다는 점을 통해,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간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구체적인 정경이나 생활상을 표현하지 않고 상투적 표현으로 관념적 대상만을 묘사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5 표현상의 특징

- 대비
: 속세와 자연을 대비하여 강호에서의 자족감을 부각한다.

6 같이 볼 작품

어부의 소박한 삶을 노래하는 조선 후기 연시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7 기출문제

2023학년도 9월 / 2010학년도 9월 / 2005학년도 6월

16 윤선도 -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어부사시사

춘사(春詞)

<1>

암 개에 안기 갯고 뒷 뒤희 히 비친다

비 빠라 비 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낫물이 미려 온다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수와(於思臥)

강촌(江村) 온갖 고지 먼 빛치 더욱 도타

<4>

우논 거시 벉구기가 푸른 거시 벉돌숨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 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수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갖 고기 뛰노느다

<5>

고운 벉티 띄안느디 물결이 기름 곱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주어 두랴 낚시를 노흘일가

지국총 지국총 어수와

탁영가(濯纓歌)의 흥(興)이 나니 고기도 니즐로다

해석

어부의 사계절 노래

봄의 글

<1>

앞 갯벌에 안개 걷히고 뒷 산에 해 비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썰물은 거의 가고 밀물이 밀려 온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니 더욱 좋다.

<4>

우는 것이 벉꾸기인가 푸른 것이 벉돌숨인가.

배 저어라 배 저어라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 뛰논다.

<5>

고운 별을 띄는데 물결이 기름같다(반짝인다).

배 저어라 배 저어라

그물을 드리워 둘까 낚싯대를 놓아 둘까.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탁영가에 흥이 나니 고기잡이도 잊겠다.

정리하기

〈6〉

석양(夕陽)이 빛겨시니 그만^ㅎ야 도라가자
 돛 디여라 돛 디여라
 안뉴명화(岸柳汀花)는 고빅고빅 새롭고야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삼공(三公)을 불리소냐 만수(萬事)를 생각^ㅎ라

〈7〉

방초(防草)를 낚와 보며 난지(蘭芷)도 뜯더보자
 비 세여라 비 세여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시른 거시 므스 짓고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갈 제는 님(烟)썬이오 올 제는 돌이로다

〈8〉

취(醉)^ㅎ야 누웠다가 여흠 아래 누리려다
 비 밍여라 비 밍여라
 낙홍(落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갓갑도다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인세홍딘(人世紅塵)이 엇메나 가렸^느니

〈6〉

석양이 비겼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돛 지여라 돛 지여라
 버들 물꽃은 굵이굵이 새롭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정승을 부러워하겠느냐 세상만사 생각하라.

〈7〉

꽃과 풀을 바라보며 난초 영지를 뜯어 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한 쪽의 작은 배에 실은 것이 무엇인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갈 때는 나 뿐이오 올 때는 달이로다.

〈8〉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내려가려다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떨어진 붉은 꽃잎이 흘러오니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속세가 얼마나 가렸는가.

정리하기

〈9〉

낙숫줄 거더 노코 봉창(篷窓)의 돌을 보자
 닳 디여라 닳 디여라
 훗마 밤 들거나 주규(子規) 소리 몹게 난다
 지국총 지국총 어수와
 나쁜 흥(興)이 무궁(無窮)하니 갈 길흠 니젓닷다

〈10〉

니일(來日)이 또 업스랴 봄밤이 몇 듯새리
 비 브터라 비 브터라
 낫대로 막대 삼고 식비(柴扉)를 추자 보자
 지국총 지국총 어수와
 어부(漁父) 싱애生涯)는 이렇 구려 디넬로다

〈9〉

낙숫줄 걷어 놓고 배에 있는 작은 창(窓)의 달을 보자.
 닳 지어라 닳 지어라
 벌써 밤이 들었나? 두견새 소리 맑게 난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남은 흥이 무궁하니 갈 길을 잊었다.

〈10〉

내일이 또 없겠는가 봄밤을 얼마 동안에 새겠는가.
 배 붙여라 배 붙여라
 낙숫대를 막대로 삼고 사립문을 찾아 보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어부의 생애는 이렇게 그렇게 지낸다.

정리하기

하사(夏詞)

<1>

구즌 비 머저 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비 빠라 비 빠라

낮대를 두러 메니 기쁜 흥(興)을 금(禁) 못 홀와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연강텃장(煙江疊嶂)은 뉘라셔 그려넌고

<2>

년 님희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

닷 드러라 닷 드러라

청약닙(靑簫笠)은 씨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무심(無心)호 백구(白鷗)는 내 존논가 제 존논가

<중략>

정리하기

여름의 글

<1>

곳은 비 머저 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낮싯대 둘러 매니 깊은 흥을 금치 못한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안개 낀 강 첩첩한 산은 누가 그려냈는가.

<2>

연잎에 밥을 싸 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닷 들어라 닷 들어라

대삿갓은 씨 잇노라. 녹색 도롱이 가져오느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무심한 백구는 나를 쫓는가 저 자신을 쫓는가.

<중략>

추사(秋詞)

〈1〉

물외(物外)에 조흔 일이 어부(漁夫) 생애(生涯) 아니려나
 비 떠라 비 떠라
 어옹(漁翁)을 웃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사시흥(四時興)이 한가지나 추강(秋江)이 웃듬이라

〈2〉

슈국(水國)의 가을히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잇다
 닷 드러라 닷 드러라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꺾지 용여(容與)후자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인간(人間)을 도라 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4〉

그러기 떴는 밧긔 못 보던 뵈 뵈노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하려니와 추흔 거시 이 흥(興)이라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석양(夕陽)이 보이니 천산(千山)이 금수(錦繡)로다

정리하기

가을의 글

〈1〉

세상 밖에 좋은 일이 어부 생애 아니겠는가.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늙은 어부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사계절 흥이 한 가지이나 가을 강이 그중 으뜸이다.

〈2〉

물 나라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닷 들어라 닷 들어라
 한없이 넓고 맑은 파도에 실컷 안겨 보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속세를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4〉

기러기 떠 있는 밖에 못 보던 산 보이는구나
 노 저어라 노 저어라
 낙시질도 하려니와 취한 것이 이 흥(興)이라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두어라! 석양이 비치니 모든 산이 금수(錦繡)이로다

동사(冬飼)

〈1〉

구름 거둔 후의 햇비치 두텁거다

비 뵈라 비 뵈라

턴디폐식(天地閉塞)호디 바다흔 의구(依舊)하다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7업슨 물결이 깎편 듯하여 있다

〈2〉

주대 다스리고 빗바블* 바깥나

닷 드러라 닷 드러라

쇼상동명(瀟湘洞庭)은 그물이 언다 한다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이 때에 어도(漁釣)하기 이만흔 디 업도다

*빗바블: 배에 물이 새지 않게 막는 것

〈8〉

물 7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하고

비 미여라 비 미여라

머흔 구름 혼(恨)티 마라 세상을 가리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딴웁(塵喧)을 막는도다

겨울의 글

〈1〉

구름 거둔 후의 햇빛이 두텁구나.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천지가 막혔으나 바다는 그대로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끝없는 물결이 비단 편 듯하여 있다.

〈2〉

낚시대 다스리고 뱃밥을 박았느냐.

닷 들어라 닷 들어라

소상강 동정호(중국 제일의 호수)는 그물이 언다 한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이때 고기 잡기 이만한 데 없도다.

〈8수〉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이 씩씩하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험한 구름 한탄하지 마라 세상을 가리는구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물결소리를 염증내지 마라 진웁(塵喧)을 막는도다

정리하기

〈중략〉

〈10〉

어와 저므러간다 연식(宴息)이 만당토다

비 브터라, 비 브터라

그눈 눈 브린 길 길히 흥치며 거러가서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설월(雪月)이 서봉(西峰)의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겨 잇자

〈중략〉

〈10수〉

아아 저물어가니 쉬는 것이 마땅하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가는 눈 뿌려진 길에 흥에 겨워 돌아와서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서봉(西峰)에 달 넘어가도록 송창(松窓)에 기대어 있노라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어옹이 하루 일과를 보내며 계절에 따른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3 주제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어부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흥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동풍(東風)**이 건듯 부니 물결이 **고이** 난다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봄 바람을 상징함.
-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궤지** 용여(容與) **허자**
슬궤지(= 슬궤장, 쓸커시, 쓸커디): 실컷.
- **허마** 밤 들거나 **자규(子規)** 소리 몹게 난다
자규: 두견새(소쩍새, 접동새, 귀촉도). 중국 촉나라 왕 망제가 한을 품고 죽어서 자규가 되었다고 전해짐.
한을 상징하는 소재로 자주 활용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 고사 인용

- **탁영가(濯纓歌)**의 **흥(興)**이 나니 **고기**도 **니즐로다**
탁영가: 굴원의 어부가에 있는 노래. ‘탁영’은 갯끈을 씻는다는 뜻임.
- **삼공(三公)**을 **블리소나** **만수(萬事)**를 **생각허라**
삼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된 세 정승. 높은 벼슬을 의미함.

* 문학사적 의의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형식상, 내용상으로 시조의 역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저 시조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여음구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 각각 서로 다른 여음구를 반복하면서 시조 전체의 유기성을 높이면서 생동감을 부각했다. 또한 내용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흥취 그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임금에 대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던 조선 전기 시조와는 달리, 사계절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와 자연을 즐기는 화자를 부각한 조선 후기 시조로써 강호가도의 서정적 특징이 강화되었다.

5 표현상의 특징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 춘사, 하사, 추사, 동사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는 다음과 같다.

춘사: 낙홍(꽃), 동풍, 봄밤 등

하사: 구름비(긋은 비) 등

추사: 추강(가을 강), 고기마다 살져 있다(가을의 풍요) 등

동사: 그물이 언다(그물이 언다), 그 눈 눈 뿌린 길 길히(가는 눈 뿌려진 길에) 등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 각 계절별로 어옹의 출항부터 귀향까지 하루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한다.
- 여음구
: 여음구를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여음구의 종류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 (비 뼈라 비 뼈라, 닷 드러라 닷 드러라 등)
: 출항부터 귀향까지의 과정을 드러내며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 중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 음성상징어를 통해 생동감과 사실감을 부여하며 흥취를 북돋는다.

6 같이 볼 작품

어부로서의 삶을 관념적으로 드러내는 이현보의 〈어부단가〉
같은 작가가 창작한 윤선도의 〈견화요〉, 〈만흥〉

7 기출문제

2014학년도 예비 / 2005학년도 6월 / 2000학년도 수능

1 원문/해석

원문
만흥

山水間(산수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놈들은 옳노다 혼다마노,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分(분)인가 호노라.

보리밥 푼 물을 알마초 먹근 後(후)에,
바윗곳 뭉그의 슬긔지 노니노라.
그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잔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 호랴.
말씀도 우움도 아녀도 못내 도하 호노라.

누고셔三公(삼공)도곤 낫다 호더니 萬乘(만승)이 이만호랴.
이제로 헤어든 巢父許由(소부허유) 약뎡더라.
아마도 林泉閑興(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업세랴.

해석
흥겨움이 가득 차다

산수 간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지으려 하니
그 모른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시골뜨기(자신)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보리밥과 푼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식럿 노니노라.
그 남은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줄 있을까.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할까.
말씀도 웃음도 없지만 못내 좋아하노라.

누가 (자연이) 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할까.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했더라.
아마도 자연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흥을 비교할 곳이 없어라.

정리하기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눌히 아루실샤,
人間萬事(인간만사)를 혼일도 아니 맞며,
다만당 두토리 엮슨 江山(강산)을 덕희라 하시도다.

江山(강산)이 도타 혼들 내 分(분)으로 누엌느냐.
님군 恩惠(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갇고자 하야도 히을 일이 업세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실까.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 다들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신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는가.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알 것 같다.
아무리 갇고자 해도 해 드릴 일이 없어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자연에 귀의하는 삶을 살아가며 임금에게 감사하고 있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하면서(어리고 하얌, 내 성이 게으르더니) 안빈낙도하는 삶의 모습을 강조한다.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드러내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대부적 모습이 나타난다.

③ 주제

자연에 귀의하여 안빈낙도하는 선비의 삶과, 이를 임금의 은혜로 여기는 연군지정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山水間(산수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뛰집: 초가집.
-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分(분)인가 흥노라.
어리고 하암: 어리석은 시골뜨기.

* 고사 인용

- 이제로 헤어든 巢父許由(소부허유) 약뎃더라.
巢父許由(소부허유): 중국의 은자 소부와 허유. 요 임금이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거절하고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영천에 귀를 씻음. 때마침 소를 끌고 온 소부는 허유가 귀를 씻는 보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는, 소에게 더러운 물을 먹일 수 없다며 소를 데리고 더 상류로 올라감.

* 문학사적 의의

윤선도의 〈만흥〉은 기존의 한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제목이었던 〈만흥〉을 주제로 시조를 창작하며 전통으로부터 독창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선도는 박인로, 정철과 함께 조선의 3대 가인이라고 불릴 만큼 조선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가장 개성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는데, 정쟁에 휘말려 총 약 20년의 긴 유배 생활과 은거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특히 반대파의 탄핵으로 유배되었다가 복귀한 뒤에는, 고택에서 멀리 떨어진 금채동 일대에 터를 잡고 십여 년간 홀로 지내기도 했다. 거처는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그곳을 거닐며 유유자적한 삶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5 표현상의 특징

- 대비
: 속세와 자연을 대비하여 자연에 귀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다.

6 같이 볼 작품

같은 작가가 창작한 윤선도의 〈견회요〉, 〈어부사시사〉

7 기출문제

2021학년도 9월 / 2007학년도 9월 / 2003학년도 9월

18 이황 -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

〈언지(言志)〉

〈제1곡〉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무슨 하료.

〈제2곡〉

연하(煙霞)에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나뇌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3곡〉

순풍(淳風)이 죽다하니 진실(眞實)로 거즈마리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한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 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숨할까.

〈제4곡〉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이 도희

백설(白雪)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도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하예

해석

도산서원에서의 12곡

뜻에 대해 말하다

〈제1곡〉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 해서 어떠하리.

하물며 자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고쳐 무엇하리.

〈제2곡〉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제3곡〉

순박한 풍속에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인성이 어지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천하에 많은 영재를 속여 말숨할까.

〈제4곡〉

그윽한 난초가 계곡에 있으나 자연이 듣기 좋아라.

흰 눈이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아라.

이 중에 저 아름다운 한 사람을 더욱 잊지 못하네.

정리하기

〈제5곡〉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때 만한 갈매기는 오명가명 하거든
 어디다 교교 백구(皎皎白鷗)는 멀리 모습 하는고

〈제6곡〉

춘풍(春風)에 화만산(花萬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
 萬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니
 그지 이슬고.

〈제5곡〉

산 앞에 높은 대가 있고 대 아래로 흐르는 물이 있다.
 때 지은 갈매기는 오며가며 하거든
 어찌하여 현자가 타는 흰 망아지(어진 사람)는 멀리 마음 두는가.

〈제6곡〉

봄바람에 산에 꽃이 만발하고 가을밤에 달빛이 대에 가득하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마찬가지로다.
 하물며 물고기 뛰고 솔개가 날며 구름이 그늘짓고 태양이
 빛나는 것(자연의 아름다움)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정리하기

〈언학(言學)〉

〈제7곡〉

천운대(天雲臺) 도라드러 완락재 소쇄(瀟灑)한뒤
만권 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이 무궁(無窮)하여라.
이 중에 왕래 풍류(往來風流)를 닮아 무슨 하고

〈제8곡〉

뇌정(雷霆)이 파산(破山)하여도 농자(聾者)는 못 듣느니
백일(白日)일 중천(中天)하여도 고자(瞽者)는 못 보느니
우리는 이목 총명 남자(耳目聰明男子)로 농고같이 마로리

〈제9곡〉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가던 길 앞에 잇네
가던 길 앞에 잇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제10곡〉

당시(當時)에 가던 길을 몇 회를 보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 되 마음 마로리.

학문에 대해 말하다

〈제7곡〉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재 맑고 깨끗한데
만권 생애로 즐거운 일이 무궁하여라.
이 중에 오가는 풍류를 일러 무엇할까.

〈제8곡〉

번개가 산을 깨도 귀머거리는 못 듣는다.
밝은 해가 중천에 떠도 장님은 못 본다.
우리는 눈과 귀가 밝은 남자로 귀머거리와 장님같지는 말리라.

〈제9곡〉

옛 성인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옛 성인을 보지 못해
옛 성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제10곡〉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어디(벼슬길)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오는가?
이제야 돌아오니 댄 곳에 마음 두지 않으리.

정리하기

〈제11곡〉

청산(靑山)은 엿찌하야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엿찌하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제11곡〉

청산은 어찌하여 영원히 푸르르며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한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언제나 푸르게 살리라.

〈제12곡〉

우부(愚夫)도 알며 하거니 꺾 아니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지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주를 몰래라.

〈제12곡〉

어리석은 자도 알며 하거니 그 아니 쉬운가
성인도 못 다 하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는 중에 늙는 줄을 몰라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제 1곡 ~ 제 6곡	언지 (言志)	도산서원의 자연 경관에 감탄하며 자연을 즐기 고 있다.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
제 7곡 ~ 제 12곡	언학 (言學)	성리학자로서 학문 수양에 힘쓰고자 하고 있다.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가 나타난다.

③ 주제

- 〈언지(제1곡~제6곡)〉: 도산서원 주변 자연 경관에 대한 감상
- 〈언학(제7곡~제12곡)〉: 학문 수양에 정진하고자 하는 다짐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무슨 하료.
천석고황(泉石膏肓): 샘과 돌이 고황(병이 생기면 낫기 어렵다는 부위)에 걸린 것 같다. 자연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연하고질(煙霞痼疾). 자연을 즐기는 것이 고질병처럼 되었다.)
- **청산(靑山)**은 잊지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만고(萬古): 오랜 옛적. 영원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수(流水)**는 잊지하야 **주야(晝夜)**에 굶디 아니는고.
주야(晝夜): 밤낮. 하루종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문학사적 의의

이항의 <도산십이곡>은 성리학자로서 벼슬에서 하직한 후 안동에 도산서원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기존의 시가에 대한 관능적이고 향락적인 주제를 배척하고, 국문 시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어졌다.
연시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후 연시조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5 표현상의 특징

- 대구법
: 제1곡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리'와 같이,
제 3, 4, 8, 11, 12곡의 초장과 중장이 서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보인다.
- 연쇄법
제9곡에서, 초장의 '나도 고인 못 뵈'가 중장의 '고인을 못 뵈도'로 이어지고, 중장의 '가던 길 앞에 잇내'가 종장의 '가던 길 앞에 잇거든'으로 이어진다.

6 같이 볼 작품

성리학의 대가 이이가 창작한 <고산구곡가>

7 기출문제

2023학년도 수능 / 2015학년도 6월 B형 / 2012학년도 9월 / 2005학년도 수능 / 2004학년도 6월

19 이이 -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고산구곡가

〈서사〉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하리라

〈제1수〉

일곡(一曲)은 어디메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걷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온 양 보노라

〈제2수〉

이곡(二曲)은 어디메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晚)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제3수〉

삼곡(三曲)은 어디메오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의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해석

고산의 아홉 구비 노래

〈서사〉

고산의 아홉 구비 골짜기를 사람이 모르더니

풀을 베고 집을 지으니 벗님네 다 오신다.

아아, 무이산을 상상하고 주자를 공부하리라.

〈제1수〉

일곡은 어디인가 갓 모양 바위에 해가 비친다

잡초 무성한 들판에 안개 걸으니 멀고 가까운 곳 모두가

그림이로다.

소나무 사이에 술잔을 놓고 벗 온 양 보노라.

〈제2수〉

이곡은 어디인가 꽃바위에 봄이 가득하다.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 들 밖에 보내노라.

사람이 아름다운 곳을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제3수〉

삼곡은 어디인가 병풍을 친 듯한 절벽에 잎 퍼졌다

푸른 숲속에 산새들은 높고 낮게 노래를 부르는데

작은 소나무가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치가 이보다

좋은 곳이 없어라.

정리하기

〈제4수〉

사곡(四曲)은 어디메오 송애(松崖)에 해 넘거다
 담심암영(潭心巖影)은 온갓 빛이 잠겨 있구나
 임천(林泉)이 깊도록 좋으니 흥(興)을 계워 하노라

〈제5수〉

오곡(五曲)은 어디메오 은병(隱屏)이 보기 좋다
 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瀟灑)함도 가이없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음풍(詠月吟風) 하리라.

〈제6수〉

육곡(六曲)은 어디메오 조협(釣峽)에 물이 넓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시고
 황혼(黃昏)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帶月歸)를 하노라.

〈제7수〉

칠곡(七曲)은 어디메오 풍암(楓巖)에 추색(秋色)이 좋다
 청상(淸霜)이 옆게 치니 절벽(絶壁)이 금수(錦繡)로다
 한암(寒巖)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노라.

〈제4수〉

사곡은 어디인가 소나무 있는 절벽 위로 해가 넘는다
 못 한가운데 비친 바위 그림자는 온갓 빛이 잠겨 있구나
 숲과 샘물이 깊을수록 좋으니 흥을 이기지 못하노라.

〈제5수〉

오곡은 어디인가 외진 곳에 숨은 절벽이 보기 좋구나.
 물가에 세워진 배움의 집은 맑고 깨끗하기 끝이 없다.
 여기서 학문을 가르치려 하니 달을 노래하고 바람을 읊으리라.

〈제6수〉

육곡은 어디인가 낚시터 골짜기에 물이 넓다.
 나와 물고기 누가 더 즐기는가
 황혼에 낚싯대 메고 달빛 두르고 돌아온다.

〈제7수〉

칠곡은 어디인가 단풍으로 덮인 바위에 가을빛이 좋다
 깨끗한 서리가 옆게 치니 절벽이 수놓은 비단같다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노라.

정리하기

〈제8수〉

팔곡(八曲)은 어디메오 금탄(琴灘)에 달이 밝다
 옥진금휘(玉軫金徽)로 수삼곡(數三曲)을 연주하니
 고조(古調)를 알 이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

〈제8수〉

팔곡은 어디인가 거문고 타는 여울에 달이 밝다
 아주 좋은 거문고로 몇 곡을 연주하니
 옛 곡을 알 이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

〈제9수〉

구곡(九曲)은 어디메오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못갓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제9수〉

구곡은 어디인가 문산에 한 해 저문다.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눈 속에 묻힐까 걱정이다.
 놀러 다니는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고산의 아홉 구비 풍경의 자연물을 묘사하고 있다.

정서와 태도

자연에 대한 예찬과 학문 수양의 즐거움이 드러난다.

3 주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느끼는 풍류와 후학 양성에 대한 의지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瀟灑)함도 **가이없다**
가이없다: 끝이 없다. 그 정도가 심하다.
-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에 **못첫세라**
~르세라: ~할까 두렵다.

* 고사 인용

-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하리라**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
고산구곡가에 영향을 준 무이도가에 대한 언급.
무이산에서 주자가 후학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며 주자에 대해 공부하리라는 학문 수양의 의지.
-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복숭아 꽃이 가득한 신비로운 마을에서 유래.
무릉도원에서 꽃을 띄워 바깥 세상으로 내보냈던 것을 연상하며, 자신이 거처하는 곳이 무릉도원임을 암시함.

* 문학사적 의의

이이의 <고산구곡가>는 작자가 황해도 해주 고산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조이다. 이이는 이황과 함께 조선시대 대표적 성리학자로 불리며 이에 따라 학문 수양과 후학 양성에 대한 의지를 시조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주자학 시인들이 <무이도가>를 수용할 때 대부분 이황과 같이 한시로 재해석하였지만 이이는 시조로 변용하여 <고산구곡가>를 창작하였다.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의 시간의 흐름과, 봄에서 겨울로의 계절의 흐름을 모두 담아내는 복합적 시간 구조를 형성하여 순환성을 보여주고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중의적 표현
: 서사에서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모르더니'에서,
고산 구곡의 경치를 알려 주고 싶다는 의미와, 학문 수양의 진미를 알려주고 싶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

6 같이 볼 작품

성리학자의 또다른 대가 이황이 창작한 〈도산십이곡〉

7 기출문제

2020학년도 9월 / 2004학년도 수능

20 권호문 –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한거십팔곡

〈제1수〉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황황(十載惶惶)하노라.

〈제2수〉

계교(計巧)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세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하여 여공불급(如恐不及)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3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자한한(自閑閑) 하였느니

조만(早晚)에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4수〉

강호에 놀자하니 성주(聖主)를 바리레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귀예라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해석

한가하게 지내는 18곡조

〈제1수〉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과 효 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짐승과 다를까.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2수〉

글재주를 서로 견주어 보다 보니 공명이 늦었어라

책 상자를 지고 이리저리 찾아다녀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걱정되는구나.

〈제3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자연)이 좋다

욕심 없는 물고기와 새는 그 스스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를 잊고 너를 따르려 하노라.

〈제4수〉

강호(자연)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정리하기

〈제8수〉

출하면 치군 택민 처하면 조월 경운
명철 군자는 이랄사 즐거나니
하물며 부귀위기라 빈천거 하오리라

〈제13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제16수〉

행장유도(行藏有道)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랴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흥노노

〈제8수〉

출(정치 생활)하면 임금을 섬기며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고,
처(자연에 은거)하면 달빛 아래 낚시하며 구름 발을 갈고
현명하고 밝은 군자는 이것을 즐기는데
하물며 부귀는 위태하니 가난한 삶을 즐기리라.

〈13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소나무 문 걸어 닫고 달빛 아래에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같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

〈16수〉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감에도 도가 있으니 버리면 굳이 구하랴.
산 남쪽 물 북쪽(서울)에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나라 구할 보물 가졌다고 오라 말라 하느냐?

정리하기

〈제17수〉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리

〈17수〉

성현이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
숨거나 나아가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
한 가지 도(道)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하리

〈제19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냐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19수〉

강가에 누워서 저 강물 보는 뜻은
강물 흐르는 것이 저와 같으니 백 년인들 길겠느냐
십 년 전 속세 집착이 얼음 녹듯 하는구나.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자연을 즐기면서 동시에 조정을 걱정하고 있다.	속세에 대한 미련과 자연친화적 삶의 태도가 동시에 드러난다.

③ 주제

벼슬길을 포기하고 자연에 귀의하는 자연친화적 삶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임천: 자연. 강호와 같은 뜻.
- **우습다** 엇그제 아니던 일을 누가 **웁다** 하던고
우습다: 우습다.
- **하물며 부귀위기라 빈천거** 하오리라
부귀위기: 부귀는 위태롭다. 속세를 지양하는 태도.
빈천거: 가난하고 천하게 살다. 안빈낙도.

* 문학사적 의의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퇴계 이황의 제자였던 작자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을 택하면서 창작한 연시조이다. 작품 전체가 19수로 꽤 긴 편인데, 각 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 속에 침잠하는 작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4수와 제5수에서 속세와 자연 사이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며, 16수와 17수에서도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19수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로 변화하면서 내적 성숙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5 표현상의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 속세를 떠나 자연에 귀의하는 과정을 시간에 따라 서술했다.

6 같이 볼 작품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을 노래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7 기출문제

2024학년도 6월 / 2019학년도 9월 / 2008학년도 수능

가사

21 정극인 - 상춘곡(賞春曲)

22 송순 - 면앙정가(倅仰亭歌)

21 정극인 - 상춘곡(賞春曲)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상춘곡

〈서사〉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히고,
 넷 사름 風流(풍류)를 마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서 至樂(지락)을 무를 짓가.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여셔라.

〈본사〉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띄어 잇고,
 綠樣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이 다롤소냐.

해석

봄을 기념하는 노래

〈서사〉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세상에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지만은
 (왜 그들은) 자연에 묻혀 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나는) 몇 칸짜리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데 자연의 주인 되었어라.

〈본사〉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잇고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해 냈나, 붓으로 그려 냈나.
 조물주의 신기한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
 소리마다 아양을 부리는구나.
 자연과 내가 하나이니, 흥이 다르겠는가?

정리하기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에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 음영)하야, 山田(산일)이 寂寂(적적)하니,
 閒中眞味(한중 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자스라,
 踏青(답청)으란 오늘 하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 하세.
 아춤에 採山(채산)하고, 나조히 釣水(조수)하세.

곳 괴여 익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꽃나모 가지 꺾거, 수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엇거든 날더러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노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 완보)하야 시냇 7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청류)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桃花(도화) 1로다.
 武陵(무릉)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정리하기

사립문에서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리며 지내는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한 가운데 느끼는 참된 맛을 알 사람 없어 혼자로구나.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구나.
 산책은 오늘 하고, 물놀이는 내일 하세.
 아침에는 산에서 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낚시하세.

갓 찌서 익은 술을 침부리로 만든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의) 수를 세며 먹으리라.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물결을 건너 오니
 맑은 향은 잔에 가득하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더러 알려라.
 아이를 시켜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서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동이 메고
 나직이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깨끗한 모래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무릉이 가깝구나, 저 들이 그것인가.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려 있네.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밌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홀샤.

〈결사〉

功名(공명)도 날 썩우고, 富貴(부귀)도 날 썩우니,
 淸風明月(청풍명월) 外(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표 누항)에 хот든 혜음 아니 하니.
 아모타, 百年行樂(백년행락)이 이만흔돌 었지 하니.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두견화를 붙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버려 있네.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비단을 펼쳐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넉넉하다.

〈결사〉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는 것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 어떤 벗이 있을까?
 누추한 거리에서 먹는 식사에 헛된 생각 하지 않으니
 아무튼 백년동안 누리는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할 것인가.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서사	속세에 사는 사람들과 자연 속에 사는 자신을 대비하고 있다.	강호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난다.
본사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풍류를 즐기고 있다.	봄 경치에 대한 영탄적 태도가 드러난다.
결사	속세보다 자연을 지향하며 자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태도가 드러난다.

3 주제

봄을 맞이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풍류와, 안빈낙도의 삶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生涯(생애) 엇더하고,
紅塵(홍진): 붉은 먼지, 어지러운 속세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하다: 많다. 현대어의 하다는 ‘후다’로 표기함.
-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아히: 아이.

* 고사 인용

- 武陵(무릉)이 갓갓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武陵(무릉): 무릉도원.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복숭아 꽃이 가득한 신비로운 마을에서 유래.
아름다운 이상향을 의미함.
- 簞瓢陋巷(단표 누항)에 훗튼 혜음 아니 하니.
簞瓢陋巷(단표 누항):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 안회가 가난함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에 감탄한 말에서 유래.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의미함.

* 문학사적 의의

정극인의 〈상춘곡〉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를 드러낸 강호한정가의 시초이다. 정극인은 조선 전기의 문인으로 성종 때 벼슬을 마다하고 자연에 은거하면서 지은 작품이다. 정극인은 〈상춘곡〉 이후에도 단가 〈불우헌가〉, 한림 별곡체 〈불우헌곡〉을 지어 한국 시사에 한 획을 그었다.

5 표현상의 특징

-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
: ‘초가집’, ‘들판, 시냇가’, ‘봄우리’로 이동하며 공간의 이동에 따라 봄의 흥취가 고조된다.
- 감정이입
: ‘새’는 봄의 기운을 못 견뎌 ‘교태’를 부리고 있는데, 이는 화자 자신이 느끼는 봄의 흥취를 이입한 것이다.
- 물아일체
: 봄의 흥취로 인해 자연물과 동화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했다.

6 같이 볼 작품

〈상춘곡〉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양반의 은일가사인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과 〈관동별곡〉

7 기출문제

2020학년도 9월 / 2014학년도 수능 / 2011학년도 수능 / 2008학년도 9월 / 2002학년도 수능

22 송순 - 면앙정가(倅仰亭歌)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면앙정가

〈서사〉

无等山(무등산) 혼 활기 뵈히 동다히로 버더 이서

멀리 세쳐 와 霽月峯(제월봉)의 되어거늘

無邊大野(무변대야)의 므슴 짐작 호노라

일곱 구비 훔디 움쳐 므득므득 버렸는 듯.

가온대 구비논 굽기 든 늘근 농이

선잠을 갓 썬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르바회 우히 松竹(송죽)을 헤치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툰 靑鶴(청학)이 千里(천 리)를 가리라 두 노래 버렸는 듯.

해석

면앙정의 노래

〈서사〉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떴고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 하느라

일곱 굽이가 한데 움츠려 우뚝우뚝 펼쳤는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혔으니.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얹혔으니

구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 펼쳤는 듯.

정리하기

〈본사1〉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누린 물이
亭子(정자) 압 너븐 들히 올올히 퍼진 드시
넙새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 마나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김을 치 펴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돋는 듯 쫓로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긋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蘆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러곰 좇니노.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오조 거슨 피힌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누즌 듯 근눈 듯 닛눈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온디 일흠논 양후야 하늘도 젓티 아녀
웃독이 섰는 거시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魚登山(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虛空(허공)에 버러거든
遠近(원근) 蒼崖(창애)의 머문 것도 하도 할샤.

정리하기

〈본사1〉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진 듯이
넓으면서 길고 푸르면서 희다.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쳐둔 듯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모래밭은 눈같이 퍼졌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달래려고
앉았다 내렸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좇는고.

넓은 길 밖에,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기는 듯 이어지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독이 서 있는 것이 추월산을 머리 삼고
용귀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펼쳐졌는데
멀고 가까운 푸른 절벽에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본사2〉

흰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로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巖(천암) 萬壑(만학)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 지고.

오르거니 누리거니 長空(장공)의 썬나거니 廣野(광야)로
거너거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사양)과 섯거디어 細雨(세우)조차 쓰리는다.

藍輿(남여)를 비야 타고 솔 아리 구븐 길로 오며 가며
흐는 적의

綠楊(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흐는고야.

나모 새 주주지어 綠陰(녹음)이 얼린 적의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어 퍼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야 굿칠 줄 모르는가.

즌 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錦繡(금수)로다.

黃雲(황운)은 또 엇디 萬頃(만경)에 퍼져 디오.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돌롤 쏘와 브니는다.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미몰커놀

造物(조물)리 현스 후야 氷雪(빙설)로 꾸며 내니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에
버려세라.

乾坤(건곤)도 가옴열샤 간 대마다 경이로다.

정리하기

〈본사2〉

(산에) 흰 구름 부연 안개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아지랑**이다.

(산아지랑이가)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울렀다가 내렸다가 하늘에 떠갔다가 넓은 들로 건너갔다가

푸르렀다가 붉었다가 열었다가 질었다가

석양과 섞여 가랑비조차 부리는구나.

(내가) 가마를 재촉하여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가며
하는 때에

푸른 버드나무에 우는 **피꼬리** 흥에 겨워 아양을 떠는구나.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녹음을 이룬 때에

(내가) 긴 난간에서 긴 줄을 내어 퍼니

수면의 선선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된 서리 건힌 후의 **산빛**이 수놓은 비단이다.

누런 구름은 또 어찌 넓은 들판에 펼쳐 있는가?

어부의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분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눈에 묻혔거늘

조물이 야단스러워 눈과 얼음으로 꾸며내니

구슬로 꾸민 궁궐과 옥빛 바다와 은빛 산이 눈앞에 펼쳐있다.

온 천지가 풍성하다 가는 곳마다 경이롭다.

〈결사〉

人間(인간)을 켜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부름도 혀려 하고 돌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쓸려노.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 하랴.
 이 뵈히 안자 보고 더 뵈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흔 무옴의 버릴 일이 아조 업다.
 설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야.
 다만 혼 靑藜杖(청려장)이 다 므디여 가노미라.

술이 익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니며 투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트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읊프락 푸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天地(천지)도 넘고넘고 日月(일월)도 한가하다.

정리하기

〈결사〉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여유가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진 꽃은 누가 쓰는가.
 아침이 (자연을 즐기기에) 바쁘거니 저녁이야 싫으랴?
 오늘이 (자연을 즐기기에) 부족하니 내일이야 넉넉하랴?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을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이 아무것도 없다.
 설 새가 없는데 길을 전할 틈이야 있겠는가.
 다만 한 명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술이 익어가니 벗이야 없겠는가.
 (내가)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타고 켜며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야 있으며 시름이야 붙어 있겠는가?
 누웠다 앉았다 굽혔다 젖혔다
 (시름) 읊었다 휘파람 불었다 마음 놓고 노니
 천지는 넓디 넓고 세월은 한가하다.

羲皇(희황)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고야
 神仙(신선)이 었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강산 풍월) 거느리고 내 百年(백 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 홀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이때까지) 복희 황제의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는데 지금이야
 그것으로구나.

신선이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내가 신선이로구나.

강산과 풍월을 거느리고 내 생애를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태백이 살아 온다 해도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가 이보다 더할 것이냐.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서사	무등산 제월봉의 형태와 면앙정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난다.
본사 1	면앙정 앞 시냇물과 물가의 기러기, 산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기러기에 대한 몰아일체의 태도가 드러난다.
본사 2	면앙정의 사계절 경치를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난다.
결사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호탕정회를 드러내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는 유교적 충의사상이 드러난다.

3 주제

자연 속에 위치한 면앙정의 경치로 즐기는 풍류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造物(조물)리 현수(현수)야 氷雪(빙설)로 꾸며 내니
현수(현수): 야단스럽다.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할 때 ‘造物(조물)리 현수(현수)야(조물주가 야단스럽게 잘 꾸며냈다)’고 사용.
- 존 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錦繡(금수)로다.
錦繡(금수): 화려한 비단.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은유적 감상으로 사용.
(참고 : 錦繡(금수)와 禽獸(금수)
권호문 -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중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忠孝(충효) 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禽獸(금수)나 다르리야.
禽獸(금수): 짐승. 무례하고 추잡한 행실을 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사용.)

* 고사 인용

- 義皇(희황)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고야
義皇(희황): 중국의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복희 황제.
- 岳陽樓(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李太白(이태백): 당나라의 문학인으로, 두보와 함께 거론되는 한시 문학의 거장, 岳陽樓(악양루)는 그의 시에 나오는 중국의 누각.

* 문학사적 의의

〈면양정가〉는 송순이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그의 고향 전라도 담양에 머무를 때, 제월봉 아래 면양정을 짓고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지은 가사이다. 정극인의 〈상춘곡〉에 이어 조선 전기 시가의 핵심인 ‘강호 가도’를 확립했다.

5 표현상의 특징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 면양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 열거와 반복
: 행동을 열거할 때 ‘~는 듯’, ‘~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6 같이 볼 작품

조선 전기 강호한정가인 정극인의 〈상춘곡〉과 정철의 〈성산별곡〉, 〈관동별곡〉

7 기출문제

2010학년도 수능 / 2007학년도 6월 / 2003학년도 수능

스스로 정리하기



Theme 3.

유배 문학



check!

필수 배경지식

① 유배 문학의 특징과 표현 방법

- 유배가게 된 원인 : 간신배들의 모함 or (가끔씩) 자신의 잘못
- 남녀간의 사랑 = 임금님에 대한 사랑
-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남

평시조 및 사설시조

23 이항복 – 철령 높은 봉에~

24 작자 미상 – 개야미 불개야미~

23 이항복 - 철령 높은 봉에~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철령(鐵嶺) 높은 봉(峯)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冤淚)를 비삼아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본들 어떠리.

해석

철령 높은 봉우리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임금 곁을 떠난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로 삼아 띄워다가
임 계신 깊은 대궐에 뿌려보는 것이 어떠리.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구름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임금 계신 대궐에 눈물을 쏟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다.
중장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는 슬픈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종장 자신의 눈물을 비로 띄우고자 하고 있다.	

③ 주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④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이항복은 인목대비 폐위에 대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커녕 복청으로 유배를 당했다.
유배를 가는 길 철령을 넘으며 왕실에 대한 근심을 비에 비유하여 창작한 시조이다.

5 표현상의 특징

- 의인화
‘구름’을 의인화하여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임금과 이별한 상황에서 궁궐에 가닿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사미인곡〉

24 작자 미상 - 개야미 불개야미~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개야미 불개야미 잔등 부러진 불개야미 압발에
정종(疔腫)나고 뒷발에 종귀 난 불개야미

광릉(廣陵) 샘재 너머 드러 가람의 허리를 가로 물어
추켜 들고 북해(北海)를 건너닷 말이 이셔이다. 남아 남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해석

개미, 불개미, 허리가 부러진 불개미,
앞발에 피부병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미

광릉 샘고개를 넘어 들어가서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 물어
추켜 들고, 북해를 건너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이시여,

백 사람이 백 가지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시적 대상인 개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참언을 경계해야 함을 교훈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장	개미가 벌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종장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퍼트려도 임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3 주제

참언에 대한 경계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온: 백. 모든.

놈: 사람. (현대국어와 달리, 낮춤의 의미가 없음)

5 표현상의 특징

- 과장법

개미가 벌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소문을 표현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임금의 현명한 판단에 대한 호소가 드러나는 〈견회요〉

스스로 정리하기



연시조

25 윤선도 - 견회요(遣懷謠)

25 윤선도 - 견회요(遣懷謠)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견회요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分別(분별)할 줄 이시랴.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뵈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秋城(추성) 鎖胡樓(진호루) 밧긔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슴 호리라 晝夜(주야)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노다.

뵈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은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귀 不孝(불효)인가 여기노라.

해석

마음에 품은 회포를 푸는 노래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틀렸다 하나

내 몸의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의 다른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랴.

내 일 망령된 줄 나라고 모를 것인가.

이 마음 어리석기도 임을 위한 탓이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아려 보소서.

추성 진호루 밖에 울며 흐르는 저 시내야.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는가.

임 향한 내 뜻을 좇아 그칠 줄을 모른다.

산은 깊고 깊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리운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는가.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마는

임금 향한 뜻은 하늘이 생기게 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가 여기노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1~3수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임에 대한 사랑을 호소한다.	임(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낸다. (충)
4수	자연물을 통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상기한다.	부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효)
5수	어버이에 대한 사랑이 임금에 대한 충성과 같다고 생각한다.	충과 효가 하나라는 깨달음을 통해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충 + 효)

③ 주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연군지정과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효심

④ 배경지식

* 창작배경에 따른 시구 해석

윤선도의 <견회요>는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당했을 때 창작한 시조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직한 삶의 자세와 임금에 대한 호소가 드러난다.

-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이첨을 탄핵한 일)을 할 뿐이다.
-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分別(분별)할 줄 이시랴. : 해야 할 일 밖의 다른 일 (세속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제1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념

-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 젊은 유생에 불과한 자신이 권신 이이첨을 고발한 것이 분에 넘치는 일인 것을 안다.

-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먹은 것도 임금을 위한 것이다.

- 아뵈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 다른 간신배가 아무리 헐뜯어도 임금께서 헤아려 보소서.

⇒ 제2수: 유배의 억울함과 임금에 대한 호소

* 자주 나오는 고어

- 슬프나 즐거오나 울다 하나 외다 하나
외다: 틀리다.

* 문학사적 의의

윤선도의 〈견회요〉는 30세 때 이이첨의 죄를 규탄했다가 도리어 자신이 함경도 경원에서의 유배 생활을 겪어야 했다. 유배지에서의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신념을 임금에게 호소하는 마음,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연시조에 담아 표현했다. 젊은 시절의 패기와 신념이 드러나며 임금을 향한 충과 부모를 향한 효를 실현하는 유학도로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감정이입
: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한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다음 두 가지이다.
 - 제 3수의 '시내': 임금이 화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입했다.
 - 제 5수의 '외기러기': 유배 생활 중 느끼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입했다.

6 같이 볼 작품

같은 작가가 창작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만흥〉

7 기출문제

2012학년도 6월

가사

26 조위 - 만분가(萬憤歌)

27 정철 - 사미인곡(思美人曲)

28 정철 - 속미인곡(續美人曲)

26 조위 - 만분가(萬憤歌)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만분가

〈서사〉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의 자청전(紫淸殿)이 가려시니
 천문(天門)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식여지여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남산(南山) 늦은 봄의 두견(杜鵑)의 녀시 되어
 이화(梨花) 가디 우희 밤낮을 못 올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裏)의 점은 한넬 구름 되어
 바람의 흘러 나라 자미궁(紫微宮)의 나라 올라
 옥황(玉皇) 향안전(香案前)의 지척(咫尺)의 나아 안자
 흉중(胸中)의 싸힌 말씀 쓸커시 사로리라

〈본사1〉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의 느저 나니
 황하수(黃河水) 말다만는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가이 업고
 가태부(賈太傅)의 녀시런가 한숨은 무스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백구(白鷗)와 버디 되어 함피 놀자 하엿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업슨 님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괴롭다

정리하기

해석

분노가 가득한 노래

〈서사〉

천상 백옥경(임금 계신 궁궐) 열두 누각이 어디인가.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신선이 사는 집이 가렸으니
 구만 리 먼 하늘을 꿈에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의 두견새의 녀이 되어
 배꽃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삼청동리(신선이 사는 곳)의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흘러 날아 자미궁에 날아 올라
 옥황상제의 향안 앞에 가까이 나아 앉아
 가슴 속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본사1〉

아, 이 내 몸 세상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맑지만
 굴원의 후신인가 상심도 끝이 없고
 가의의 녀인가 한숨은 무슨 일인가.
 형강이 고향 같구나. 십 년을 유배 생활로 떠돌아다니니
 흰 갈매기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엿더니
 아양을 떠는 듯 사랑하는 듯 남의 없는 임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 아름답다.

오색(五色)실 니움 절너 님의 옷슬 못 하야도
 바다 가튼 님의 은(恩) 추호(秋毫)나 갑프리라
 백옥(白玉)가튼 이 내 마음 님 위하여 직희더니
 장안(長安) 어제 밤의 무서리 섯거치니
 일모수죽(日暮脩竹)의 치수(翠袖)도 냉박(冷薄)할샤
 유란(幽蘭)을 짓거 쥐고 님 겨신 디 바라보니
 약수(弱水) 가리진디 구름 길이 머흐러라
 다 서근 닭긔 얼굴 첫맛도 채 몰나서
 초채(樵悴)한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리컨자

〈본사6〉

옥안(玉顔)이 꽃이로되 눈물 가려 못 볼로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玉皇上帝) 처분(處分)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玉皇上帝) 처분(處分)이라
 노가디고 식어지여 혼백(魂魄)조차 훗터지고
 공산(空山) 축루(觸臚) 가치 님자 업시 구니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第一峯)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여 이셔
 바람비 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니기나
 윤회(輪回)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여
 일만(一萬) 이천봉(二千峯)의 마음갓 소사 올라
 가을 달 발근 밤의 두어 소리 슬피 우러
 님의 귀의 들리기도 옥황상제(玉皇上帝) 처분(處分)일다

정리하기

오색실 이음이 짧아 임의 옷을 못 지어도
 바다 같은 임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한양 어제 밤에 무서리 섞어 치니
 해질녘 긴 대나무에 기대 있으니 푸른 옷소매도 차갑고 얇구나.
 난꽃을 꺾어 쥐고 임 계신 곳 바라보니
 약수 갈라진 곳에 구름 길이 험하구나.
 다 썩은 닭의 얼굴 첫 맛도 채 몰라서
 초채한 이 얼굴이 임 그리워 이렇구나.

〈본사6〉

임금 얼굴이 꽃이로되 눈물 가려 못 보겠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빈 산 해골같이 임자없이 굴러다니다
 곤륜산 제일봉의 큰 소나무 되어 있어
 바람비 부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윤회 만 번 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 봉 마음껏 솟아 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다.

〈본사7〉

한(恨) 이 뿔희 되고 눈물로 가디 삼아
 님의 집 창 밖기 외나모 매화(梅花) 되여
 설중(雪中)의 혼자 피여 침변(枕邊)의 이위는 듯
 월중소영(月中疎影)이 님의 옷의 빗취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東風)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高潔)한 이 내 생계 죽림(竹林)의나 부치고져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너 저어 건덕궁(乾德宮)의 가고지고
 그려도 한 마음은 위궐(魏闕)의 달녀 이셔
 내 무든 누역 속의 님 향한 꿈을 깨어
 일편(一片) 장안(長安)을 일하(日下)의 바라보고
 외오 곳겨 올히 곳겨 이 몸의 타실넌가

〈본사7〉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로운 나무 매화 되여
 눈 속에 혼자 피어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달빛에 비치는 그림자가 임의 옷에 비치거든
 불쌍한 이 얼굴을 너로다 하고 반기실까.
 동쪽에서 분 바람이 정이 있어 매화 그윽한 향을 불어 올려
 고려한 이 내 생애 자연에나 부치고 싶다.
 빈 낙신타 비껴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백구(한강) 건너 저어 궁궐에 가고 싶구나.
 그래도 한 마음은 조정에 달려 있어
 연기 묻은 도롱이(비옷) 속 임 향한 꿈을 깨어
 한 곳 서울만을 한눈에 바라보고
 그릇되게 머뭇거리며 옳게 머뭇거리며 이 몸의 탓인가.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서사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백옥경을 떠나게 된 울분과 백옥경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본사1	유배지에 있는 자신을 굴원과 가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
본사6	모든 것이 슬픈 운명 탓이려니 하며 금강산의 학이 될 것을 생각한다.	유배 생활의 운명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
본사7	궁궐로 가고 싶은 마음과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임에 대한 일편단심을 드러낸다.

③ 주제

유배 생활의 억울함과 연군지정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이 몸이 **식여저도** 옥황상제(玉皇上帝) 처분(處分)이라
식여지다: 죽다.
- 차라리 할마(瞎馬) 가치 눈 감고 지내**고져**
~고져, ~오져: ~하고 싶다.

* 고사 인용

-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가이 업고
초객(楚客): 초나라 시인 굴원,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서 투신했다는 고사가 있음.
- **가태부(賈太傅)**의 녀시런가 한숨은 무스 일고
가태부(賈太傅): 한나라 시인 가의, 대신들의 시기를 받아 벼슬에서 좌천되었다는 고사가 있음.
-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형강(荊江): 중국 강소성 근처의 강으로 유배지로 주로 사용됨.
-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괴롭다
금화성(金華省): 중국 금화현. 신선 적송자가 금화산에서 득도했다는 고사가 있음.
- **약수(弱水)** 가리진디 구름 길이 머흐러라
약수(弱水): 중국 설화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 건너야 하는 전설의 강. 깃털조차 뜨지 못할 정도로 부력이 약해 절대 건널 수 없는 강.
- **백구(白溝)** 건네 저어 건덕궁(乾德宮)의 가고지고
백구(白溝): 중국 송나라와 요나라의 경계를 이루던 강. 맥락상 우리나라의 한강을 지칭함.

* 문학사적 의의

조위가 무오사화로 인해 정치적 혼란기에 억울하게 유배를 오게 된 현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유배 가사의 효시가 되는 작품으로, 억울한 심리 표출과 연군지정이 주로 드러난다.

5 표현상의 특징

- 여성 화자
: ‘오색실’로 ‘임의 옷’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를 천상 세계에서 버림받은 여성으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같이 볼 작품

유배 상황을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한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유배 생활에 대한 분노와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린 안조환의 〈만언사〉

7 기출문제

2019학년도 6월 / 2015학년도 9월 B형 / 2007학년도 수능

27 정철 – 사미인곡(思美人曲)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사미인곡

<서사>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緣分(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젊어 닛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노여 업다.

平生(평성)애 願(원)하오되 혼디 네자 하얏더니,
 늙거야 무슨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뵈셔 廣寒殿(광한뎌)의 올랐더니,
 그더되 엇디하야 下界(하계)에 내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디 三年(삼년)이라.
 臙脂粉(연지분) 잇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마음의 미친 설음 疊疊(텃텃)이 빠져 이서,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人生(인성)은 有限(유한)하되 시름도 그지 업다.

無心(무심)하 歲月(세월)은 물 흐르듯 흐느고야.
 炎涼(염량)이 때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해석

미인을 사모하는 노래

<서사>

이 몸이 태어날 때 임을 좇아 태어나니,
 한평생 인연이며 하늘이 어찌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사랑하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전혀 없다.

평생애 원하오되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는가.
 엇그제 임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랐더니
 그 동안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왔는가.
 올 적에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삼년이라.
 연지분 있지마는 누구를 위해 곱게 단장할까.
 마음에 맺힌 서러움 첩첩이 쌓여 있어
 짓는 것이 한숨이오 흐르는 것이 눈물이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이 많기도 많다.

정리하기

<본사1>

東風(동풍)이 건듯 부러 積雪(적설)을 헤쳐내니,
窓(창) 밖기 심근 梅花(미화) 두세 가지 피어세라.
곳득 冷淡(냉담)흔디 暗香(암향)은 므스 일고.
黃昏(황혼)의 둘이 조차 벼마튀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花(미화) 것거 내어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본사2>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陰(녹음)이 싹렸논디,
羅幃(나위) 寂寞(적막)하고, 繡幕(슈막)이 뷔여 있다.
芙蓉(부용)을 거더 노코 孔雀(공작)을 둘러 두니,
곳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鴛鴦錦(원앙금) 버혀 노코 五色線(오식선)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 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手品(슈품)은쿠니와 制度(제도)도 그줄시고,
珊瑚樹(산호슈) 지게 우히 白玉函(백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흘시고.
千里 萬里(천리 만리) 길흘 뉘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본사1>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 싶다.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본사2>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비단 휘장이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다.
연꽃 휘장을 걷어 놓고 공작 병풍을 둘러 두니,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기뻐던가.
원앙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실 풀어 내어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 임의 옷 지어 내니,
숨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보석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 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까.
가거든 열어 두고 나를 보신 듯 반가워하실까.

정리하기

<본사3>

하룻밤 서리감의 기러기 우러 넬 제,
 危樓(위루)에 혼자 올라 水晶簾(수정렴) 거든 말이,
 東山(동산)의 돌이 나고 北極(북극)의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光(청광)을 쥐여 내어 鳳凰樓(봉황루)의 붓티고져.
 樓(누) 우히 거러 두고 八荒(팔황)의 다 비취여,
 深山窮谷(심산궁곡) 점낫그티 밍그소서.

<본사4>

乾坤(건곤)이 閉塞(폐식)하야 白雪(백설)이 혼 빗친 제,
 사름은 크니와 놀새도 곱쳐 있다.
 蕭湘南畔(소상남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樓高處(옥루고처)야 더욱 날러 므습허리.
 陽春(양춘)을 부쳐 내어 님 겨신 딘 쏘이고져.
 茅簷(모첨) 비친 히를 玉樓(옥루)의 올리고져.
 紅裳(홍상)을 니미 초고 翠袖(취슈)를 半(반)만 거더,
 日暮脩竹(일모슈독)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燈(청등) 거른 것티 鈿空篋(뎨공후)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턱 밧고 비겨시니,
 鵲錦(앙금)도 초도 찰사 이 밤은 언제 셀고.

<본사3>

하룻밤 사이 서리 내릴 무렵에 기러기 울며 날 때,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보이니,
 임이신가 반가워 눈물이 절로 난다.
 맑은 달빛을 집어내어 봉황루(임 계신 궁궐)에 부쳐 보내고 싶다.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을 비추어
 깊은 산골짜기도 대낮같이 만드소서.

<본사4>

천지가 얼어붙어 막히고 흰 눈이 한 빛으로 덮여있을 때
 사람은커녕 날짐승도 끊어져 있다.
 소상강 남 둔덕(전남 창평)도 추위가 이와 같은데
 옥루고처(임 계신 궁궐)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따뜻한 봄 기운을 부쳐 님 계신 데 쏘게 하고 싶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임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걸어
 해 저문 날의 긴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어 긴 밤을 푹푹이 앉아
 청등 걸어둔 곁에 자개로 장식한 공후(악기) 놓아 두고
 꿈에서나 임을 보려 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새 수놓은 이불 차기도 차다, 이 밤은 언제 셀까.

정리하기

<결사>

하루도 열 두 새 혼 둘도 설흔 날,
 저근덧 생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무음의 미쳐 이셔 骨髓(골수)의 켜터시니,
 扁鵲(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하니.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덕 족족 안니다가,
 향 드든 날애로 님의 오식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샤도 내 님 조촉려 하노라.

<결사>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간 동안 생각 말아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뼉속까지 사무쳤으니,
 명익가 열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
 아,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사라져 범나비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앓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으리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좇으려 하노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서사	임과 이별하고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본사1	봄에 핀 매화를 보고 임에게 보내고 싶어 한다.	임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본사2	여름의 녹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임의 옷을 지어 보내고 싶어 한다.	임을 향한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본사3	가을의 서리김을 보며 임의 청광으로 세상을 밝힐 것을 갈망하고 있다.	임의 선정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본사4	겨울의 백설 속에서 적막함을 느끼며 임에 대한 염려와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임에 대한 염려와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결사	범나비에 빗대어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임에 대한 변함 없는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주제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빗대어 표현한 연군지정

④ 배경지식

*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어

- 東風(동풍)이 건듯 부러 積雪(적설)을 헤터내니,
東風(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봄
- 꽃 디고 새 잎 나니 綠陰(녹음)이 싹틔논디,
綠陰(녹음, 초록빛 수풀의 그림자): 여름
- 햅쌀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넬 제,
서리김(서리 내릴 무렵), 기러기(기러기): 가을
- 乾坤(건곤)이 閉塞(폐식)햅야 白雪(백설)이 흰 빗친 제,
白雪(백설, 흰 눈): 겨울

* 자주 나오는 고어

- 나 **흔**나 **점**어 **넛**고 **님** **흔**나 **날** **괴**시니,
괴다: 사랑하다.
- 日暮脩竹(일모슈죽)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험가림(= 헤음, 험): 생각. 헤아림

* 문학사적 의의

정철이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탄핵을 받아 물러난 뒤 4년간 전남 창평에 지낼 때, 임금과 조정에 대한 그리움을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빗대어 표현한 노래이다. 임금을 연모하는 연군지사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여성 화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남녀 간의 사랑으로 임금에 대한 충심을 표현하여 보편적인 공감을 얻고자 했다.

* 고사 인용

- 扁鵲(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헝**리.
扁鵲(편작):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중국의 명의.

5 표현상의 특징

- 여성 화자
: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호소력을 높이고 애절한 연군지정을 표현했다.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 본사에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사미인곡〉의 후속 작품, 정철의 〈속미인곡〉
충신연주지사의 효시가 된 고려가요, 정서의 〈정과정〉

7 기출문제

2021학년도 수능 / 2013학년도 6월 / 2006학년도 9월 / 1998학년도 수능

28 정철 – 속미인곡(續美人曲)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속미인곡

〈서사1〉

데 가는 데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데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서사2〉

어와 네여이고 내 소셜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측훈가마노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저러이 구뎡뎡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히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기티 빠져시니

하눌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랴.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본사1〉

글란 싱각 마오.

해석

사미인곡의 속편

〈서사1〉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서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논고.

〈서사2〉

아, 너로구나. 이 내 사정 들어 보오.

내 모습 이 행동이 임에게 사랑받을만 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기에

나도 임을 믿어 댄 뜻이 전혀 없어

응석과 아양을 부리면서 어지러이 굴었는지

반기시는 늦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이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탓하랴.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본사1〉

그렇게는 생각 마오.

정리하기

〈본사2〉

미친 일이 이서이다.

님을 피서 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7톤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 햏야 디내시며

츄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피섯노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피 네와 곻티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노고.

〈본사3〉

님다히 쇼식(消息)을 아프려나 아쟈 햏니

오늘도 거의로다. 뉘일이나 사롬 올라.

내 무옴 돌 디 엇다. 어드러로 가쟈 말고.

잡거니 밀거니 뉘픈 뵈히 올라가니

구름은 7니와 안개는 무스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랴.

출하리 물 7의 가 뵈 길히나 보쟈 햏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경 된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뵈비만 걸렸노고.

강턴(江天)의 햏자 셔셔 디는 햏를 구벼보니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욱 아득햏더이고.

〈본사2〉

(마음 속에) 햏힌 일 있습니다.

임을 모셔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 같이 약한 몸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봄 추위와 여름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가을 겨울날은 누가 모섯는가.

자릿조반(아침밥)과 아침저녁 진지는 예와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본사3〉

임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 저물었다 내일이나 사롬 올라.

내 마음 돌 데 엇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뵈를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아주 가까운 곳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으랴.

차라리 물가에 가 뵈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샤공은 어디 가고 뵈 배만 걸렸는가.

강천에 햏자 셔셔는 지는 햏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햏구나.

정리하기

〈본사4〉

모첩(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누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야 풋즘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7톤 열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무옴의 머근 말숨 슬궤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씨뒸던고.

〈결사1〉

어와, 허수(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자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결사2〉

각시님 돌이야궤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정리하기

〈본사4〉

초가집 처마 찬 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벽 가운데 등불은 누구를 위해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잠간 사이에 기운이 다해 풋즘을 잠간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니
옥 같은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구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아뢰자 하니
눈물이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찌 하며
정을 못다해 목마져 메니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결사1〉

아아 헛된 일이로다 이 님이 어디 갔는가.
즉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사라져서 지는 달이나 되어
임 겨신 창 안에 뚜렷이 비추리라.

〈결사2〉

각시님 달은커녕 궤은비나 되쇼셔.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화자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서사1	갑녀	을녀와 마주쳐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 있다.	백옥경과 이별한 을녀에 대한 애상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서사2	을녀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 자책하고 있다.	자책과 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
본사1	갑녀	을녀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을녀를 위로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본사2	을녀	임이 전과 같은 일상을 보내며 잘 지내는지 걱정하고 있다.	임에 대한 염려가 드러난다.
본사3	을녀	임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본사4	을녀	홀로 밤을 보내며 꿈 속에서 임을 만났다가 깨어나고 있다.	화자의 외로움과 재회에 대한 소망이 드러난다.
결사1	을녀	임이 없는 현실을 한탄하며 '달'과 같이 임을 따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은 소망이 드러난다.
결사2	갑녀	'달'보다는 '갯은비'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	을녀를 위로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③ 주제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빗대어 표현한 연군지정

④ 배경지식

*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비교

	사미인곡	속미인곡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 천상에서 하계로 적강한 여성 화자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빗대어 표현한 연군지정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화자의 독백 - 화자와 임의 관계: 화자 > 임 (화자가 임에게 무언갈 주는 존재) - 소극적 태도 (‘범나비’ 되어 임을 몰래 따르고자 함) - 잦은 한자어 사용과 중국 고사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화자의 대화(중심 인물과 보조적 인물) - 화자와 임의 관계: 임 > 화자 - 비교적 적극적이고 서민적인 어조 (‘갯은비’ 되어 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함) - 소박한 우리말 표현 위주 구사

* 자주 나오는 고어

•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 즉흥가마는

얼굴: 모습. 현대어에서는 ‘얼굴’이 눈, 코, 입이 있는 머리 앞면만을 가리키지만,
고어에서는 사람의 전체적 형상이나 모습을 가리킴. (의미 축소)

•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어엿브다: 불쌍하다. 현대어의 ‘어여쁘다’와는 의미가 달라짐. (의미 이동)

* 문학사적 의의

정철이 관직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에서 지낼 때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지은 가사이다. 가사 문학의 일반적 특징이었던 중국 고사의 인용이 드러나지 않고 소박한 우리말 위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5 표현상의 특징

• 여성 화자

: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연군지정을 나타냈다.

• 대화 형식

: 두 여성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6 같이 볼 작품

〈속미인곡〉보다 먼저 창작된 비슷한 성격의 작품, 정철의 〈사미인곡〉

7 기출문제

15학년도 9월 B형 / 14학년도 6월 B형 / 06학년도 수능 / 04학년도 6월

스스로 정리하기



Theme 4.

사랑과 이별



평시조 및 사설시조

- 29 이조년 – 이화에 월백하고~
- 30 홍랑 – 뿔버들 갈해 것거~
- 31 황진이 – 어저 내일이여~
- 32 황진이 – 동짓달 기나긴 밤을~
- 33 작자 미상 – 귀뚜리 저 귀뚜리~
- 34 작자 미상 – 개를 여라문이나 기리되~
- 35 작자 미상 – 님이 오마 후거늘

29 이조년 - 이화에 월백하고~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 야 알라마난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樣)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해석

배꽃에 달빛이 하얗게 밝고 은하수 흐르는 자정인 때
한 가지에 깃든 봄의 마음을 소쩍새야 알 리 있으라마는
다정함도 병인 듯하여 잠을 이룰 수 없구나.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하얀 배꽃과 은하수의 시각적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봄날 밤의 풍경을 묘사하며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중장	소쩍새가 우는 청각적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종장	임을 생각하는 다정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주제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취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삼경: 하루를 5개의 시간으로 나눈 오경 체제의 세 번째 시간.

오경 체제는 초경(오후 7시~9시), 이경(오후 9시~11시), 삼경(오후 11시~오전 1시), 사경(오전 1시~3시), 오경(오전 3시~5시)로 나뉜다. 주로 '초경'은 초저녁, '삼경'은 한밤중을 의미.

-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 야 **알라마난**

자규: 두견새(소쩍새, 접동새, 귀촉도). 중국 촉나라 왕 망제가 한을 품고 죽어서 자규가 되었다고 전해짐.

한을 상징하는 소재로 자주 활용.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

* 문학사적 의의

작품의 창작 시기는 고려 말기로, 이조년은 나라의 정세가 기울어가던 때 충혜왕의 문란한 생활에 대해 간언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조에 대해 봄날 밤에 느끼는 임에 대한 다정함을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5 표현상의 특징

- 감각적 이미지

초장에서 시각적, 중장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같이 볼 작품

밤 풍경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어부단가〉

30 홍랑 - 뭇버들 갈해 것거~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뭇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더

자시는 창밧긔 심거두고 보쇼서

밤비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서

해석

산에 난 버들 가려(아름다운 것을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 계신 곳에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거든 나인가 하고 여기소서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산에서 난 버들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골라 임 계신 곳에 보내고자 한다	임에게 자신의 분신인 버들을 보내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중장 버들을 임의 곁에 두고 보라고 부탁한다.	
종장 밤비에 새 잎이 나면 자신을 떠올려 달라고 부탁한다.	

3 주제

임에게 보내는 사랑

4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홍량은 경성의 기생으로서 고죽 최경창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최경창이 서울로 돌아가며 서로 이별하게 되자, 최경창에게 뗏버들을 선물하며 읊은 것이 바로 이 시조이다. 최경창이 서울로 돌아간 후 병상에 앓아누웠다는 소식을 듣자
꼬박 7일 밤낮을 걸어 경성에서 서울로 가서 그를 간호한다.
그러나 경성 사람이 도성에 출입할 수 없었던 '양계의 금'과, 인순왕후의 국상 중이라는 이유로 최경창은 파직되고 홍량은 돌아가며 다시 이별한다.
최경창은 객지에 다시 부임하였으나 타지에서 객사하였고 홍량 또한 그의 무덤 앞에서 죽게 된다.

5 표현상의 특징

- 상징
뗏버들은 화자의 분신으로써 임의 곁에 항상 있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 도치
'뗏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에서 도치를 통해
임 계신 곳에 함께하고 싶다는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임 계신 곳 창 밖의 매화로써 임과 함께하고 싶음을 드러낸 〈만분가〉, 〈사미인곡〉

31 황진이 - 어저 내일이여~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어저 내일이여 그릴 줄을 모로도냐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하노라.

해석

아아 내가 한 일이여 그리울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 했더라면 떠났겠냐마는 제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겠노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임을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중장	임을 보낸 상황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종장	임을 떠나보낸 것은 자신이지만, 임을 그리워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의문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주제

이별의 정한

④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황진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꼽힌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으로 섬세하게 표현하며,
다양한 독창적 표현을 통해 애절한 연정시를 다수 창작하였다.

5 표현상의 특징

- 영탄법

‘어저’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여성적 어조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사미인곡〉

32 황진이 - 동짓달 기나긴 밤을~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동지(冬至)^\^ 돌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해석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 임 오신 날 밤에 굶이굽이 퍼리라.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임과 함께 있지 않은 긴 시간을 잘라두고 싶어한다.	임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중장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시간을 넣어두겠다고 한다.	
종장	임과 함께 있는 밤에 다시 시간을 펼쳐 임과 오래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3 주제

임에 대한 사랑

4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황진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으로 섬세하게 표현하며,
다양한 독창적 표현을 통해 애절한 연정시를 다수 창작하였다.

5 표현상의 특징

- 추상의 구체화
추상적 대상인 ‘밤’을 자르거나, 이불 아래 넣거나, 다시 펼치는 등 구체적인 대상처럼 다루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 음성상징어
‘서리서리’와 ‘굽이굽이’를 통해 ‘밤’을 넣었다가 꺼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여류 작가의 작품으로써 여성적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규원가〉

33 작자 미상 - 귀뚜라미 귀뚜라미~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귀뚜라미 귀뚜라미 어엿부다 저 귀뚜라미

어인 귀뚜라미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
(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리네어 사창(紗窓) 여윈
잠을 살뜰리도 깨오는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 이는 너 뿐인가 하노라.

해석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애처롭다 저 귀뚜라미

어찌 된 일인지 귀뚜라미는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하게 슬픈 소리 제 혼자 계속 울어 비단 창문 안의
뜻장을 잘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지만 독수공방 하는 내 뜻 알 이는 너
뿐인가 하노라.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시적 대상인 귀뚜라미에 주목하고 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통해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중장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화자의 잠을 깨우고 있다.	
종장	귀뚜라미만이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느끼고 있다.	

3 주제

독수공방의 외로움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사창(紗窓) 여윈 잠을 살뜰리도 깨오는고야.
사창(紗窓): 비단 창문. 여인이 머무르는 방을 나타냄.

5 표현상의 특징

- 감정이입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슬픈' 소리라고 인식하며 자신의 감정을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투영하고 있다.
- 반어법
귀뚜라미 소리가 잠을 잘도 깨운다며 반어법으로 표현하여 귀뚜라미에 대한 원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한 <방 안에 헛는 촉불>,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7 기출문제

2020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34 작자 미상 - 개를 여라문이나 기리되~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개를 여라문이나 기리되 요 개긋치 알미오라

뛰온 님 오며는 꼬릴 뽀뽀치며 썩락느리썩락 반겨서 내뎛
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프르락나으락 캉캉
즈저서 도라가게 한다

싣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해석

개를 열 마리 넘게 기르지만 이 개처럼 알미운 것이 있으랴.

미운 님이 오면 꼬리를 뽀뽀 치면서 뛰어 올랐다 내리 뛰었다
하면서 반겨서 맞이하고, 고운 님이 오면 뒷발을 버둥거리면서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캉캉 짖어 돌아가게 한다.

싣밥이 그릇그릇 남는들 너 먹일 줄 있으랴.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시적 대상인 개에 주목하고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개에 대한 원망을 통해 간접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장	개가 미운 임을 반기고 사랑하는 임을 내쫓는다.	
종장	개에게 싣밥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	

3 주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개를 여라문이나 기리되
여남은: 열이 조금 넘는 숫자.

5 표현상의 특징

- 음성상징어
‘훼훼’, ‘버둥버둥’, ‘캉캉’의 음성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음성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님이 오마 하거늘~〉

1 원문/해석

원문

님이 오마 허거늘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로 가액
 하고 오논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들 서 잇거
 늘 저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
 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준 드 므른 디
 글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엿말 허려 하고 젓눈을
 흘끗 보니 상년 칠월 사흔날 골가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
 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 만정 형여 낮이런들 님 우일 번허쾌라.

해석

님이 온다 하여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마에 손을
 얹고 오논가 가는가 건넌산 바라보니 거머희뜩한 것이 서 있
 거늘 저것이 님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
 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곳 마른 곳 가리
 지 않고 워령통탕 건너가서 정이 있는 말 하려 하고 결눈으
 로 흘끗 보니 작년 칠월 열사흔날 깎아 벗긴 주추리 삼대 잘
 도 날 속였구나.

모처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님 웃길 뻔 하였
 구나.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임이 오는 상황에서 저녁을 일찍 지어 먹었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과장된 행동을 통해 드러 나고 있다.
중장 임인 줄 알고 반기려 나갔더니 주추리 삼대였다.	
종장 낮이었으면 남에게 비웃음을 살 뻔했다고 하며 멋쩍어하고 있다.	

3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모쳐라 밤일식 만정 형여 닛이런들 님 우일 번후패라.
~만정: ~이기에 망정이지.

5 표현상의 특징

- 음성상징어
'곰빅님빅 님빅곰빅', '천방지방 지방천방', '워령충창'의 음성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음성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Theme 5.

사실적인 삶



평시조 및 사설시조

여성의 삶

36 작자 미상 - 식어마님 며느라기 낫바~

36 작자 미상 - 식어마님 며느라기 낫바~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식어마님 며느라기 낫바 벽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쳐 온 며느린가. 밤나무 썩은 등걸
에 휘초리 나니긋치 알살피신 식아바님, 벗 뵈 쇠똥긋치 되
종고신 식어마님, 三年(삼년) 겨론 망태에 새 송곳부리긋치
뽕족한 식누의님, 唐(당)피 가론 밧에 돌피 나니 긋치 노란
윗곳 가튼 피똥누난 아들 하나 두고,

건 밧에 메곶가튼 며느리를 어디를 낫바 하시난고.

해석

시어머님 며느리 밧다고 부엌 바닥 구르지 마시오.

빛 내서 바든 며느린가 값을 주고 사 온 며느린가. 밤나무 썩은
등걸에 가늘고 긴 나뭇가지 난 것 같이 매서우신 시아버님, 벗 본
쇠똥같이 깐깐하신 시어머님, 삼 년 엮은 망태에 새 송곳 끝같이
뽕족하신 시누이님, 좋은 곡식 심은 밧에 잡초 난 것 같이
셋노란 오이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남편) 하나 두고.

기름진 밧에 메곶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미워 하십니까.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시어머님께 며느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시집살이의 고통과 시집 가족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장	시집 가족들의 날 선 태도와 무능한 남편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종장	소중한 며느리를 왜 미워하는지 묻고 있다.	

3 주제

시집살이의 고달픔

4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이 작품은 시집살이라는 서민적 생활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화자는 며느리의 관점에서 보는 시집 식구들의 성품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며, 시집살이의 고된 마음을 웃음으로 승화하고자 한다.

5 표현상의 특징

• 열거법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누이님, 남편의 모습을 차례로 열거하며 묘사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서민 여성의 삶에 노래한 이 작품과 달리 상류층 여성의 삶에 대해 노래한 <규원가>

스스로 정리하기



가사

사실적인 삶

37 박인로 - 누항사(陋巷詞)

여성의 삶

38 허난설헌 - 규원가(閨怨歌)

37 박인로 - 누항사(陋巷詞)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누항사

〈서사〉

어리고 우환(迂闊)홀산 이 니 우히 더니 업다.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하날기 부쳐 두고,

누항(陋巷) 킷폰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셴히 되야,

셔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에 빈 배 석일 켜이로다.

생애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움길넌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 조차 저어(齟齬)하다.

〈본사1〉

기올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뷔엿거든 병(甁)이라 담겨시랴.

빈곤(貧困)호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논가.

분의 망신(奮義忘身)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우탁 우랑(于橐于囊)의 줌움이 모아 녀코,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

이시섭혈(履尸涉血)하야 몇 백전(百戰)을 지니연고.

해석

누추한 거리(자신이 사는 동네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의 노래

〈서사〉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로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추한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 두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짚이 땀감이 되어

세 흙 밥 다섯 흙 죽을 만드는 데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덜 데운 숯불에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활이 이러하다고 대장부의 뜻을 바꿀까.

안빈낙도하리라는 일념을 적게나마 품고 있어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나 날이 갈수록 어렵다.

〈본사1〉

가을에도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이 담겼으랴.

빈곤한 인생 세상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끓을 만큼 괴롭힌다고 해도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의에 분발하여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죽어야 말겠노라고 여겨

군인의 배낭에 한 줍씩 모아 넣고

병정과 창 5년에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가 몇 백 전쟁을 치렀던가.

정리하기

〈본사2〉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라.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져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싱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돌 놀드려 물물노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니 분(分)인 줄 알리로다.

〈본사3〉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賤)타 흐리
 업것마는,
 아프려 갈고전돌 어니 쇼로 갈로손고.
 한기태심(旱既太甚)하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눅흔 눈에 잠싼 긴 널비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싼 디혀두고,
 쇼 흔 적 듀마 하고 엄섬이 하는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돌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춤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호온 후(後)에,
 어와 괴 뉘신고 엄치(廉恥) 업산 니옴노라.

정리하기

〈본사2〉

내 몸이 설 여가 있어 집안을 돌아보겠는가.
 긴 수염이 난 종은 종과 주인의 분을 잊어버렸는데,
 봄이 왔다고 나에게 일러줄 것을 어느 사이에 생각하리.
 밭 가는 일을 종에게 묻는다 한들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는 것이 내 분수에
 맞는 줄 알겠다.

〈본사3〉

이윤과 진승을 천하다 할 사람이 없지만
 아무리 갈려고 한들 무슨 소로 갈겠는가.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하여 농사철이 다 늦은 때,
 서쪽 독 높은 눈에 잠깐 오다 갠 여우비에
 길 위에 흐르는 근원 없는 물을 반쯤 대어 두고
 소 한번 빌려 주마 하고 엉성히 하는 말삼
 친절하다고 생각한 집에 달 없는 저녁에 허둥지둥 달려 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에헴 소리를 꽤 오래 한 후에,
 ‘어, 그 누구신가’(소 주인의 말) ‘엄치 없지만 묻겠습니다.’
 (화자의 말)

〈본사4〉

초경(初更)도 거윈디 그 엿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하기 구차(苟且)흔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에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흔이나 감시나 주업 측도 헛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룸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쭈어 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하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넝고.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하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홀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뿐이로다.

〈본사5〉

와실(蝸室)에 드러간돌 잠이 와사 누어시라.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시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느다.
 종조(終朝) 추창(惆悵)하야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느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느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아싸온 저 소뵈는 벗보님도 도홀세고.
 가시 영킨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정리하기

〈본사4〉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신가’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마는
 소 없는 궁핍한 집에 걱정 많아 왔습니다.’
 ‘공짜로 하나 값을 하나 빌려줍직 하다마는
 다만 어제 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평을 구슬같이 기름이 끓어오르게 구워 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런 은혜를 어찌 아니 갚을까.
 내일 (소를) 주마 하고 큰 약속 하였거든
 약속 어기기 편하지 아니하니 말씀드리기 어려워라.’
 ‘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찌할까.’
 현 모자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 맥없이 풀려 오니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가 짚을 뿐이다.

〈본사5〉

달팽이 집(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돌운다.
 아침이 끝날 때까지 서글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워 부르는 농부의 노래도 흥 없이 들린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끝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쟁기 날도 좋구나.
 가시 영킨 묵은 밧도 쉽게 갈 수 있으면만,
 빈 집 벽 가운데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봄 농사도 거의 지냈다 팽개쳐 던져 버리자.

〈결사1〉

강호(江湖) 흔 꿈을 꾸었지도 오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저쩌다.
첨피기옥(瞻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흥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핀 곳에 명월 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님지 업손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흥며 말라 흥랴.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결사2〉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스라.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해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긔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흥건마는

정리하기

〈결사1〉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꿈을 꾸었는지도 오래되니,
먹고 입는 것이 누추하여 아아 잊었도다.
기나라의 물가를 보건대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이 낙숫대 하나 빌려 줘라.
갈대꽃 깊은 곳에 밝은 달과 맑은 바람 벗이 되어
임자 없는 자연에 근심 없이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할라 하랴.
다들 이 없는 것은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결사2〉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뜻과 취향 있으라마는,
두세 이렇 밧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절대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내 가난 싫게 여겨 손을 내젓는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 부럽게 여겨 손짓을 한다고 나아오랴.
인간 어느 일이 운명과 상관없이 생겼으리.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 하건만

님 생애(生涯) 이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혼 뜻이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헝리 님 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렷노라.

내 삶이 이렇다 한들 서러운 마음은 없다.
 단사표음이지만 만족하여 여긴다.
 평생 한 뜻이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데에는 없다.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을 삼아
 형제간 화목하고 친구와 신의 있게 지내는 것을 그르다 할
 사람이 누가 있으라.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타고난 대로 살겠노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서사	생활의 궁핍함을 겪고 있다.	안빈낙도의 이상과 궁핍한 현실의 대립을 겪으며 한탄하고 있다.
본사1	충성심으로 고투했던 임진왜란을 회상한다.	가난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우국지정을 드러내고 있다.
본사2	전란 후 집으로 돌아와 몸소 농사를 짓기로 한다.	야박한 세태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드러난다.
본사3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가 없어 이웃에게 소를 빌리러 간다.	
본사4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만 당하고 돌아온다.	
본사5	집에 돌아와 신세에 대해 한탄하며 농사를 포기한다.	
결사1	강호 속에서 늙고 싶은 소망이 나타난다.	빈이무원, 단사표음의 이상이 드러난다. 유교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결사2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고 있다.	

③ 주제

빈곤한 선비의 삶에 대한 묘사와 안분지족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단사표음(簞食瓢飮): 도시락 밥과 표주박의 물.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뜻함. 안분지족.

* 고사 인용

-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賤)타 허리 업것마논,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 잡초 많은 들에서 밭을 갈다 재상이 된 이윤과, 밭둑에서 밭을 갈다 재상이 된 진승을 말함. 화자의 가난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옛 명재상을 언급하며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강조함.

* 문학사적 의의

박인로는 임진왜란을 겪고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난한 생활을 했다. 천편일률적인 강호 시가의 형태를 가진 조선 전기 가사의 제한적 주제의식과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가난한 생활상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그리는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5 표현상의 특징

- 직설적 표현

: 일상 어휘를 활용하여 가난한 생활상과 삶의 고통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유배로 인해 가난하고 고된 삶을 겪는 안조환의 <만언사>

7 기출문제

2013학년도 9월 / 2009학년도 6월 / 2003학년도 9월

1 원문/해석

원문

규원가

<서사>

옛그제 저멋더니 허마 어이 다 늙거니.

少年行樂(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습 허자니 목이 멘다.

<본사1>

父生母育(부생모육) 辛苦(신고) 허야 이내 몸 길러 낼 제

公侯配匹(공후 배필)은 못 바라도 君子好逑(군자 호구)
願(원) 허더니

三生(삼생)의 怨業(원업)이오 月下(월하)의 緣分(연분)으로,

長安遊俠(장안 유협) 輕薄子(경박자)를 꿈가치 만나 잇서,

當時(당시)의 用心(용심) 허기 살어름 디디는 듯,

<본사2>

三五二八(삼오 이팔) 겨우 지나 天然麗質(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態度(태도)로 百年期約(백년 기약) 허얏더니,

年光(연광)이 훌훌하고 造物(조물)이 多時(다시) 허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雪鬢花顏(설빈 화안) 어딤 두고 面目可憎(면목 가증)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꺾소냐.

스스로 慚愧(참괴) 허니 누구를 원망허리.

해석

규방(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에서 원망하는 노래

<서사>

옛그제 젊었더니 벌써 어찌 다 늙었는가.

어린 시절에 즐겁게 지냈던 것을 생각하니 말해도 헛되다.

늙어서 서러운 말 하자니 목이 멘다.

<본사1>

부모님이 낳아 기르며 몸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

높은 벼슬의 배필은 바라지 않아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길
바랐더니

전생, 현생, 후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

장안의 호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있어,

시집간 뒤 마음 쓰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본사2>

15, 16세 겨우 지나 타고 난 아름다운 모습 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 기약 하였더니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이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벼들의 벼을 사이에 북 지나듯(매우 빠르게)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보기 싫은 얼굴이 되었구나.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느 임이 나를 사랑하겠는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리.

정리하기

<본사3>

三三五五(삼삼 오오) 冶遊園(야유원)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있어,
 白馬金鞭(백마 금편)으로 어딤 어딤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본사4>

因緣(인연)을 굶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두 썰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근 매화 몇 번이나 피여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므스 일고.
 三春花柳(삼춘 화류) 好時節(호시절)의 景物(경물)이 시름업
 다.
 가을 돌 방에 들고 蟋蟀(실솔)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본사3>

삼삼 오오 다니는 기생집에 새 기생이 생겼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홀륭한 말과 값비싼 채찍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가.
 원근 지리를 모르는데 임의 소식이야 더욱 알겠는가.

<본사4>

인연을 끊어낸들 생각이야 없겠는가.
 얼굴을 못 보면 그림지나 말 것이지
 열두 썰 길기도 길구나 서른 날 지루하다.
 규방의 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지는가.
 겨울 밤 차갑고 차가울 때 적게 내리는 눈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궂은 비는 무슨 일인가.
 온갖 꽃이 피고 버들잎이 돌아나는 봄날 좋은 시절에 경치를
 보아도 아무 감흥이 없다.
 가을 달 밤에 들고 귀뚜라미 침상에 올 때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걱정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정리하기

<본사5>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혀여 어이혀리.
 靑燈(청등)을 돌라 노코 綠綺琴(녹기금) 빗기 안아,
 碧蓮花(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 조춌 섯거 타니,
 瀟湘夜雨(소상 야우)의 댓소리 섯도는 듯,
 華表(화표) 千年(천년)의 別鶴(별학)이 우니는 듯,
 玉手(옥수)의 타는 手段(수단) 넷 소래 잇다마다,
 芙蓉帳(부용장) 寂寞(적막)히니 뉘 귀에 들리소니,
 肝腸(간장)이 九曲(구곡) 되야 구비구비 쓴쳐서라.

<결사>

출하리 잠을 드러 꿈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뉘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天上(천상)의 牽牛織女(견우 직녀) 銀河水(은하수) 막혀서도,
 七月七夕(칠월 칠석) 一年一度(일년 일도) 失期(실기)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弱水(약수) 가렸관디,
 오거니 가거나 消息(소식)조차 쓰쳤는고.
 欄干(난간)의 비겨 셔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草露(초로)다 맺쳐 잇고 暮雲(모운)이 디나갈 제,
 竹林(죽림) 푸른 고딧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업다 헝려니와,
 薄命(박명)한 紅顏(홍안)이야 날 가튼니 쏘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헝여라.

정리하기

<본사 5>

돌이켜 풀어두고 생각하니 이리 해서 어찌할 것인가.
 등불을 돌려 놓고 푸른 거문고 비껴 안아,
 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 따라 섞어 타니,
 소상강에 밤비가 내릴 때 댓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망주석 위에 천 년만에 찾아온 특별한 학이 우는 듯
 아름다운 손에 타는 솜씨가 옛 소리 잇다마는
 연꽃 휘장 조용하니 누구 귀에 들릴까.
 구곡간장하여 굵이굵이 끊어졌다.

<결사>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이 견우 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칠월 칠석 일년에 한 번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렸는가.
 오고 가는 소식조차 그쳤는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나무숲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지만
 기구한 운명의 젊은 여자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임의 탓으로 살 듯 말 듯 하다.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서사	늙은 자신의 서러운 속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세월의 무상함에 대한 서러움이 드러난다.
본사1	부부의 인연을 시작할 때 느꼈던 불안감을 토로한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본사2	세월이 지나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	늙고 외로운 신세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본사3	정처 없이 나가 있는 남편의 소식을 궁금해한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질책이 드러난다.
본사4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경치를 보며 임을 기다리고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다.
본사5	거문고를 타며 시름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한이 드러난다.
결사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임과 만나지 못하며 소식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탄식이 드러난다.

3 주제

봉건 사회에서 독수공방하는 부녀자의 한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肝腸(간장)이 九曲(구곡) 되야 구빅구빅 쓴쳐서라.

구곡간장 九曲肝腸: 아홉 번 굽은 간과 창자.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하다는 상투적 표현.

* 문학사적 의의

허난설헌의 규원가는 현전하는 가사 가운데 최초의 여류 가사로 작가층을 여성으로 확대시켰다. 규방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속절없이 늙어 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과, 그럼에도 그리운 남편에 대한 기다림이 여성적 어조로 형상화된다. 당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규방 가사와 애정 가사에 영향을 미쳤다.

5 표현상의 특징

- 여성 화자
: 규원가는 최초의 여류 가사로 여성 화자와 여성적 소재를 활용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 객관적 상관물
: ‘자최눈’, ‘구즌비’는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6 같이 볼 작품

여성 화자를 앞세운 〈사미인곡〉, 〈속미인곡〉

7 기출문제

2022학년도 9월 / 2001학년도 수능

스스로 정리하기



Theme 6.

사회 비판



평시조 및 사설시조

39 작자 미상 -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40 작자 미상 - 두터비 파리를 물고~

39 작자 미상 -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댁(宅)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화괴 무서시라
웨논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후행(前
行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
(淸醬) ㄹ스스 ㅎ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ㅎ렴은

정리하기

해석

여보시오 동난지이(게젓) 사시오. 저 장사꾼아 네 물건 무엇이랴
외치느냐? 사자.

외골내육(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럽고), 양목이 상천(두 눈이
위로 솟고), 전행후행(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소아리(작은 다리)
여덟 개 대아리(큰 다리) 두 개 청장(맑은 장에 담근) 아사삭 하
는 동난지이(게젓) 사시오.

장사꾼아 그렇게 거북하게 하지 말고 게젓이라 하지.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게젓 장수가 '동난지이'를 사라고 하자, 손님이 그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표현하는 게젓 장수를 풍자하 고 있다.
중장 게젓 장수가 장황하고 어렵게 게젓을 설명한다.	
종장 손님이 어렵게 말하지 말고 게젓이라고 말하라고 핀잔을 준다.	

3 주제

현학적 태도에 대한 비판

4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사설 시조는 서민들의 생활 형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서민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특히, '게젓'을 현학적으로 묘사하는 게젓 장수에게 직설적으로 풍자하는 손님의 태도에서 풍자적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 표현상의 특징

• 문답법

두 명의 화자(게젓 장수와 손님)가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상이 전개된다.

6 같이 볼 작품

세태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는 〈두터비 파리를 물고~〉

40 작자 미상 - 두터비 파리를 물고~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어 내닷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식만정 에헐질 변하괘라

해석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으니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피멍 들 뻘했구나.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가 앉아 있다.	양반의 허세를 우의적으로 표현하여 풍자하고 있다.
중장	흰 송골매를 보고 놀라 넘어진다.	
종장	두꺼비가 자화자찬하며 변명하고 있다.	

3 주제

양반 계층의 허장성세에 대한 풍자

4 배경지식

* 시어의 상징적 의미

두터비	백성을 상대로 부당하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 계층
파리	양반 계층에게 당하는 백성
백송골	양반 계층보다 지위가 더 높은 관리 또는 외세

5 표현상의 특징

- 상징
두터비, 파리, 백송골에 각각 상징적 의미를 담아 우의적으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세태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는 〈덩들에 동난지이 사오~〉

7 기출문제

2011학년도 6월

스스로 정리하기



Theme 7.

기행 가사



가사

41 정철 – 관동별곡(關東別曲)

42 김인겸 – 일동장유가

41 정철 - 관동별곡(關東別曲)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관동별곡

〈서사〉

강호(江湖)에 병(病)이 깊퍼 독림(竹林)의 누웠더니,
관동(關東) 팔백(八百) 리(里)에 방면(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罔極)하다.
연추문(延秋門) 드리드라 경회(慶會) 남문(南門) 바라보며,
하직(下直)고 물너나니 옥절(玉節)이 알피 췌다.
평구역(平丘驛) 물을 7라 흑수(黑水)로 도라드니,
섬강(蟾江)은 어디메오 티악(雉岳)이 여기로다.
쇼양강(昭陽江) 누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샤.
동주(東州) 1 밤 계오 새와 북관정(北寬亭)의 올라오니,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峰)이 험마면 뵈리로다.
궁왕(弓王) 대궐(大闕) 터희 오작(烏鵲)이 지지괴니,
천고(千古) 흥망(興亡)을 아논다 몰9 논다.
회양(淮陽) 네 일흠이 마초아 7톨시고.
급장유(汲長孺) 풍치(風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해석

관동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노래

〈서사〉

(나의)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대나무 숲에 누웠더니
관동 팔백 리 방면의 소임을 맡기시니
아아 임금 은혜야 갈수록 망극하다.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루 남문을 바라보며,
임금께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관직의 증서)이 앞에 서 있다.
평구역(양주)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여주)로 돌아드니
섬강(원주 근처 강)은 어디인가 치악(원주)이 여기로다.
소양강의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니 백발이 많기도 많다.
동주(철원) 밤 겨우 세워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임금 계신 곳)이 웬만하면 보이로다.
궁예왕의 대궐 터에 까마귀와 까치 지저귀니
천고의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회양 옛 이름이 마침 같구나.
급장유 풍채를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정리하기

〈본사1〉

영등(營中)이 무수(無事)하고 시절(時節)이 삼월(三月)인 제,
화천(花川) 시내길히 풍악(楓岳)으로 버터있다.
힝장(行裝)을 다 썰티고 석경(石徑)의 막대 디퍼,
백천동(百川洞) 겨덕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러가니,
은(銀) 7톤 무지개 옥(玉) 7톤 룡(龍)의 초리,
섯돌며 썸는 소리 십(十) 리(里)의 주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금강대(金剛臺) 댜 우층(層)의 선학(仙鶴)이 샅기 치니,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의 첫조를 씨뒸던디,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 보고,
정양사(正陽寺) 진혈대(眞歇臺) 고터 올라 안존마리,
녀산(廬山) 진면목(眞面目)이 여괴야 다 뵈누다.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수토 현수홀샤.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갓는 듯 백옥(白玉)을 못갓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놉홀시고 망고대(望高臺) 외로울샤 혈망봉(穴望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수 일을 수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누다.
어와 녀여이고 너 7투니 또 잇는가.
기심대(開心臺) 고터 올라 동향성(衆香城) 바라보며,

정리하기

〈본사1〉

관청이 잘 돌아가고 시절이 삼월인 때
화천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여행 채비를 다 마치고 돌길에 막대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폭포)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섞어 돌며 뿜는 소리 십 리에 잦았으니
들을 때는 천둥소리이고 볼 때는 눈이다.

금강대 맨 위층에 신선이 타는 학이 새끼 치니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었던지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학)가 공중에 솟아 뜨니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

소향로 대향로 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혈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중국 산)의 진면목이 여기서야 다 보이는구나.
아아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 말아라.
연꽃을 꽃아둔 듯 백옥을 묶어둔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둔 듯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아아 너구나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개심대 다시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萬) 이천봉(二千峰)을 녑(歷歷)히 혀여하니,
 봉(峰)마다 밋쳐 잇고 곳마다 서린 기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기운 흐터 내야 인걸(人傑)을 문돌고자.
 형용(形容)도 그지업고 태세(體勢)도 하도 할샤.
 텃디(天地) 삼기실 제 자연(自然)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有情)홀샤.

비로봉(毗盧峰) 상양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야 뉘뉘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텃하(天下) 어찌하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로디 못하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후략)

(금강산의) 만 이천봉을 분명히 헤아리니
 봉마다 밋혀 잇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고 깨끗하거든 맑지 말라.
 저 기운 흘러 내어 인재를 만들고 싶다.
 (금강산의) 형상과 웅모도 끝이 없고 태세도 많기도 하다.
 천지 생겨날 때 저절로 되었지만
 이제 와 보게 되니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 본 이 그 누구신가.
 동산 태산(중국 산)이 어느 것이 높다던가.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디 넓은 천하 어찌하여 작단 말인가.
 아아 저 지위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오르기 못하니 내려감이 이상할까.

(후략)

정리하기

〈본사2〉

(전략)

니화(梨花)는 벌써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낙산(洛山) 동반(東畔)으로 의상대(義相臺)에 올라 안자,
일출(日出)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하니,
상운(祥雲)이 집피는 동 녹농(六龍)이 바되논 동,
바다히 색날 제논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턴둥(天中)의 티쓰니 호발(毫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시선(詩仙)은 어디가고 히타(咳唾)만 나맛느니.
턴디간(天地間) 장(壯)흔 괴별 주셔히도 흘서이고.

(중략)

정리하기

〈본사2〉

(전략)

배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 때
낙산 동쪽으로 의상대에 올라 앉아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듯 여섯 용이 받치는 듯
바다에 떠오를 때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다가
하늘에 치뜨니 머리카락을 헤아릴 만큼 밝다.
아마도 지나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시인은 어디 가고 시꾸만 남았다.
천지간 굉장한 소식 자세히도 적혀 있구나.

(중략)

진주관(眞珠館) 독서루(竹西樓) 오십천(五十川) 누린 물이,
태백산(太白山) 그림자를 동해(東海)로 다마 가니,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멱(木覓)의 다히고져.
왕명(王程)이 유한(有限)하고 풍경(風景)이 못 슬미니,
유회(幽懷)도 하도 할샤 객수(客愁)도 둘 되 업다.
선사(仙槎)를 띄워 내어 두우(斗牛)로 향(向)하살가,
선인(仙人)을 추주려 단혈(丹穴)의 머므살가.

턴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명(望洋亭)의 읊은말이,
바다 밝근 하늘이니 하늘 밝근 므서신고.
갓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판디,
불거니 썸거니 어저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짓거 내어 녹합(六舍)의 누리는 듯,
오월(五月) 당련(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진주관 죽서루 오십천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가니
차라리 한강 남산에 달게 하고 싶다.
관원의 여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싫증나지 않으니
마음 속의 회포도 많기도 많다. 나그네의 쓸쓸함도 둘 데 없다.
선선의 배를 띄워 내어 북두칠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신라의 사선을 찾으려 단혈에 머무를까.

하늘의 끝을 못 보아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밝은 하늘이니 하늘 밝은 무엇인가.
가득 화난 고래 누구라서 놀라게 하기에
불거니 뿔거니 어지러이 구는가.
은산을 꺾어 내어 온 세상에 내리는 듯
오월 넓은 하늘에 흰 눈은 무슨 일인가.

정리하기

〈결사〉

저근딿 밤이 드러 풍낭(風浪)이 덩(定)히 거늘,
 부상(扶桑) 지척(咫尺)의 명월(明月)을 기다리니,
 서광(瑞光) 천당(千丈)이 뵈는 듯 숨는고야.
 주렴(珠簾)을 고터 짓고 옥계(玉階)를 다시 쓸며,
 계명성(啓明星)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백년화(白蓮花) 흔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세계(世界) 늑대되 다 뵈고져.
 뉴하쥬(流霞酒) 가득 부어 달드려 무론 말이,
 영웅(英雄)은 어디가며 수선(四仙)은 그 뉘러니,
 아득나 맛나 보아 넷 괴별 못자 하니,
 선산(仙山) 동해(東海)에 갈 길이 머도 멀샤.

송근(松根)을 베여 누어 풋잠을 얼핏 드니,
 꿈에 흔 사람이 날드려 닐온 말이,
 그디를 내 모르랴 상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황명경(黃庭經) 일주(一字)를 엇디 그릇 닐거 두고,
 인간(人間)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오논다.

정리하기

〈결사〉

잠간 사이 밤이 들어 풍랑이 가라앉는데
 해가 뜬 곳 가까이에서 **밝은 달**을 기다리니
 천 길이나 뻗은 상서로운 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을 다시 걷고 옥같이 흰 돌을 다시 쓸며
 샛별 듯도록 다시 앉아 바라보니
백련화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다.
 신선의 술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누구더냐
 아무나 만나 보아 옛 소식 묻자 하니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다.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을 얼핏 드니
꿈에 한 사람이 날드려 이른 말이
 “그대를 내 모르랴 하늘나라의 신선이다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 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혼 잔 머저 보오.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창희슈(滄海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놀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하야 낭익(兩腋)을 추혀드니,
 구만(九萬) 리(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수히(四海)에 고로 논화,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밍근 후(後)의,
 그제야 고터 맛나 쏘 혼 잔 흥갓고야.
 말 디자 학(鶴)을 타고 구공(九空)의 올라가니,
 공둥(空中) 옥쇼(玉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줌을 썬여 바다홀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7인들 엇디 알리.
 명월(明月)이 천산만낙(千山萬落)의 아니 비췌 디 업다.

(내가) “잠깐 동안만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북두칠성 기울여 푸른 바닷물 부어 내어
 저 먹고 나를 먹이거든 서너 잔 기울이니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양쪽 겨드랑이를 추켜드니
 구만 리 하늘에 잠깐이면 날 것 같다.
 “이 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하고 싶다.”
 말 끝나자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니
 공중 옥피리 소리 어제인가 그제인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끝인들 어찌 알리.
 명월이 온 세상에 안 비친 데 없다.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서사	관찰사로 부임되어 관내를 돌아보고 있다.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선정에 대한 포부가 드러난다.
본사1	금강산을 유람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영탄적 태도와 화자의 우국지정이 드러난다.
본사2	관동 팔경을 유람하고 있다.	
결사	망양정에서의 월출을 감상하고, 꿈을 통해 신선과 만나고 있다.	1. 자연 풍경에 대한 영탄적 태도를 보인다. 2. 애민정신이 드러난다. 3. 왕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을 드러내며 유교적 충의 사상을 실천한다. 4. 자신을 신선화하여 도교적 풍류를 즐기고 있다. 5. 유교적 충의 사상과 도교적 신선 사상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

③ 주제

관동의 절경 유람, 관동 지방 관찰사로서의 연군지정과 애민 사상
& 유교적 충의 사상과 도교적 신선 사상 사이에서 내적 갈등

4 배경지식

* 철령관 철령 고개에 외적의침입을 막으려고 건설한 요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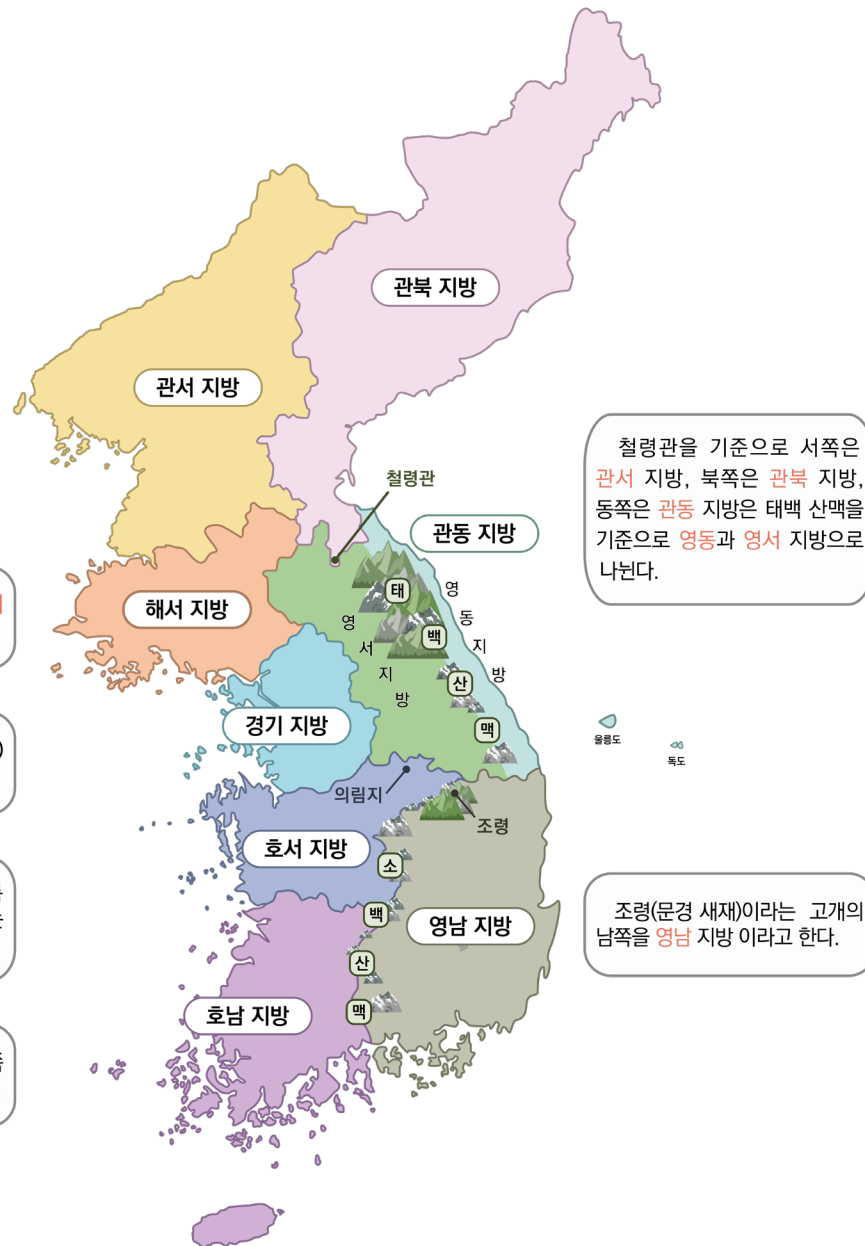
* 의림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저수지

경기만의 서쪽에 있어서 **해서** 지방이라고 한다.

경기는 왕이 사는 도읍(한양)과 그 주변의 땅을 뜻한다.

의림지 또는 금강(옛 이름 호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지방을 **호서** 지방이라고 한다.

금강의 옛 이름인 호강의 남쪽에 있어서 **호남** 지방이라고 한다.



* 자주 나오는 고어

-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르세라: ~할까 두렵다.
- 기핽를 모루거니 7인들 엇디 알리.
7: 끝. '7이 없다' (끝이 없다)의 형태로 사용되어 뉘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 고사 인용

- 회양(淮陽) 네 일흔이 마초아 7 톨시고.
급당유(汲長孺) 풍치(風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회양(淮陽) - 급당유(汲長孺): 한 무제 때의 태수, 정치를 잘 하여 와치회양(누워서도 회양을 잘 다스린다)이라는 칭송을 받음. 정철이 소임을 맡은 강원도의 한 지방 이름도 회양이라 같은 지명을 가진 고사를 연상한 것.
-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 송나라 시인 임포를 가리킴.
서호에 은거하며 매화를 아내로, 학을 아들로 삼아 살았다는 고사가 있음.
-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노야 눕듯던고.
노국(魯國)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천하(天下) 엇찌 호야 적당 말고
동산(東山) 태산(泰山): 공자가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는 고사.
도달하는 경지가 높을수록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의미임.
- 황명경(黃庭經) 일주(一字)를 엇디 그릇 날거 두고,
황명경(黃庭經): 신선들이 읽는다는 도교 경전. 한 글자만 잘못 읽어도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음.

* 문학사적 의의

정철이 45세 되던 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면서 관동 팔경을 유람하며 경험한 빼어난 경치에 대한 감탄이 주로 드러난다. 관리로서의 우국지정과 연군지정, 애민사상이 드러나지만 개인적 풍류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한다. 꿈 속에서 신선과의 만남을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 말의 묘미를 살리는 표현이 많아 가사 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고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 관동 지방의 절경을 유람하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대구법
: ‘날거든 뛰디 마나 / 셋거든 솟디 마나’에서 대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면앙정가의 ‘넙거든 기노라 프료거든 희지마니’의 영향을 받은 구절이다.
- 대화체
: 꿈에 한 사람과, 화자가 대화를 이어나간다.

6 같이 볼 작품

같은 작가의 <성산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7 기출문제

2021학년도 6월 / 2015학년도 수능 B형 / 2010학년도 6월 / 1999학년도 수능

1 원문/해석

원문

장풍(長風)에 돛을 달고, 육선(六船)이 함께 떠나
삼현(三絃)과 군악 소리 해산(海山)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海口)를 열른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 지우고,
고국(故國)을 돌아보니, 야색(夜色)이 창망(滄茫)하여
아무것도 아니 되고, 연해(沿海) 각진포(各鎭浦)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叉樑)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睡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넓은 앞이 우는구나.

해석

거센 바람에 돛을 달고 여섯 척의 배가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산과 바다를 진동시키니
물 속의 고기들이 마땅히 놀라리라.
부산항을 열른 떠나 오륙도를 뒤로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밤빛이 아득하여
아무 것도 아니 보이고, 얇은 바다에 있는 군영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서 보일 듯 말 듯하다.
선실에 누워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마음이 어지러운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사방에 자욱하니
곡식을 만 곡이나 실은 큰 배가 나뭇잎처럼 나부끼듯
하늘에 올랐다가 땅 밑에 떨어지니
열두 발이나 되는 쌍 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짚으로 엮어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큰 천둥소리 작은 벼락은 등 아래서 울리고,
성난 고래 움직이는 용이 물 속에서 희롱하니,
선실의 요강과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 좌우 선실 널빤지는 저마다 삐걱거리는구나.

정리하기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東萊) 산이 눈썹 같고,
 동남(東南)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이 없어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함께 떠난 다섯 배는 간 데를 모르겠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水疾)하야
 풍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네.
 다행할사 종사상(從事相)은 태연히 앉았구나.
 배방에 도로 들어 눈감고 누웠더니,
 “대마도(對馬島)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다시 일어나 나와보니 십리는 남았구나

(중략)

정리하기

이윽고 해가 돋거늘 굉장한 구경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아아 굉장하구나!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 리 우주 속에 큰 물결 뿐이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 산이 눈썹 같고,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가 끝이 없어
 위아래로 푸른 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함께 떠난 다섯 배는 간 곳을 모르겠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배멀미하여
 풍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을 듯이 앓네.
 다행인 것이 종사상(통신사의 수장)은 태연히 앉았구나.
 선실에 도로 들어가서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기에
 다시 일어나 나와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중략)

이십리 실상사(實相寺) 가 삼사상(三使相) 조복(朝服)할 때
 나는 내리잡고 왜성(倭城)으로 바로 가니,
 “인민(人民)이 부려(富麗)하기 대판(大阪)만은 못하여도
 서(西)에서 동(東)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관사(館舍)는 본룡사(本龍寺)요 오층(五層) 문루(門樓)위에
 열아문 구리 기둥 운소(雲霄)에 닿았구나.
 수석(水石)도 기절(奇絶)하고, 죽수(竹樹)도 유취(幽趣) 있네.
 왜황(倭皇)이 사는데라 사치가 측량없다.
 산형(山形)이 웅장하고, 수세(水勢)도 환포(環抱)하여
 옥야천리(沃野千里) 생겼으니 아깝고 애닦을손
 이리 좋은 천부금탕(天府金湯) 왜놈의 기물(器物)되어
 칭제칭왕(稱帝稱王)하며 전자전손(傳子傳孫)하니,
 개돌같은 비린 유(類)를 다 모두 소탕하고,
 사천 리 육십 주를 조선땅 만들어서
 왕화(王化)에 목욕감겨 예의국 만들꼬다.

이십리 실상사에게 가 세 사신이 하례할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으로 바로 가니
 “백성이 부유하고 화려하기 오사카만은 못 하여도
 서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관사는 본룡사요, 오층 문루 위에
 여남은 구리 기둥 구름 낀 하늘에 닿았구나.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도 아주 신기하고 대나무도 그윽한
 운치가 있다.
 왜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스럽기 그지없다.
 산의 모양이 웅장하고 물의 흐름이 사방에 둘러싸여
 끝없이 넓고 기름진 들판이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프다.
 이리 좋은 방에 시설이 타고난 성이 왜놈의 기물 되어
 황제라고 칭하고 왕이라 칭하며 자식 손자에게 전하니,
 개돼지같은 더러운 종자를 다 모두 소탕하고,
 사천 리 육십 주를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왕의 교화에 목욕감겨 예의국으로 만들고 싶다.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1~18행	배가 부산항에서 출발한 뒤 큰 태풍을 겪었다.	고국을 떠나 마음이 어지러운데, 태풍을 만나 더욱 심각해진다.
19~36행	태풍이 끝난 후 배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
37~51행	일본 백성의 삶, 자연환경, 문물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왜적을 소탕하여 조선 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	일본의 발달한 문화에 감탄하면서도 왜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주제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의 견문

④ 배경지식

* 일동장유가 전체 구성

- 제1권: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는 과정
- 제2권: 부산에서 승선하여 대마도를 거쳐 적간관에 도착하는 과정
- 제3권: 정월 초하루 적간관의 명절부터 오사카, 교토 등을 거쳐 에도에 들어가 사행 임무를 다하는 과정
- 제4권: 일본을 떠나, 부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여 왕을 뵈는 과정

* 문학사적 의의

일동장유가는 조선 최장의 기행 가사로 김인겸이 일본 통신사로 갔을 때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시다. 당대의 일본 문물, 제도, 풍속 등에 대해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의 발달한 문물에 대한 감탄과 왜적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상반된 태도가 함께 드러난다.

5 표현상의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 작가가 일본 통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보고 들은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 묘사
: 배가 태풍을 만난 상황이나, 자신이 보고 들은 일본 문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6 같이 볼 작품

실제로 보고 들은 농민의 생활상을 묘사한 <농가구장>

7 기출문제

2019학년도 수능 / 2024학년도 수능

Theme 8.

솔직한 감정



평시조 및 사설시조

늪음

43 우탁 -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답답함

44 작자 미상 -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인생무상

45 길재 - 오백 년 도움지를~

43 우탁 -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춘산(春山)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디 업다
저근덧 비러다가 마리 우희 불니고져
귀밋테 해묵은 서리 녹여볼가 하노라

해석

봄 산에 눈 녹인 바람 잠깐 불고 간 곳 없다.
잠시동안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귀 밑에 해묵은 서리 녹여볼까 한다.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봄 산에 눈 녹인 바람이 사라졌다.	늪음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중장	화자가 그 바람을 잠시 빌려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종장	백발을 녹여 젊음을 되찾고 싶어한다.	

③ 주제

늪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

4 배경지식

* 시어의 상징적 의미

춘산	짧게 머무르고 사라지는 젊음
귀 밧데 해묵은 서리	백발. 늙음.

* 문학사적 의의

이 작품은 늙음을 소재로 한 평시조이다.

늙음에 대해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바람을 빌려다가 귀 밑의 서리를 녹이고 싶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늙음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5 표현상의 특징

- 색채 대비
‘춘산’이 갖는 푸른 색채의 이미지와, ‘서리’가 갖는 흰 색채의 이미지를 대조하여 젊음과 늙음이라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적극적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44 작자 미상 -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비옥겔새

크나큰 장도리로 똥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해석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배목겔새(창문에 들어가는 부품들)를 큰 장도리로 뚝뚝 박아서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이따금씩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달아 불가 하노라.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화자가 가슴에 창을 내고 싶어한다.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난다.
중장 창문에 들어가는 부품을 열거하며 창을 내고 싶음을 강조한다.	
종장 창을 내고 싶은 이유로 답답할 때 여달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3 주제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

4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이 작품은 답답함을 소재로 한 사설 시조이다.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은 심정을 '창문'이라는 소재를 통해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구체적인 생활 언어를 열거하면서 답답함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사설 시조 화자가 갖는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5 표현상의 특징

- 추상의 구체화
답답한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창'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하였다.
- 열거법
창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열거하며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절실한 심정이 드러난다.

6 같이 볼 작품

적극적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춘산에 눈 녹인 바람〉

45 길재 - 오백 년 도읍지를~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오백 년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돌아오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데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해석

오백 년 이어졌던 도읍지를 말 한 필과 함께 들어가니,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 곳 없다.
아아, 태평성대를 누리던 지난 날이 꿈인가 하노라.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초장	고려의 옛 도읍지 송도로 말 한필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	고려 왕조가 망하고 인걸이 떠난 도읍지에서 쓸쓸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중장	자연은 그대로이지만 더 이상 고려의 인걸이 없음을 발견한다.	
종장	고려 왕조가 망한 것에 대해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③ 주제

고려 왕조의 무상함

④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길재는 고려 유신으로,
이 작품은 고려의 옛 도읍 송도에서 느끼는 고려에 대한 회고의 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나라가 망하고 인재가 없어진 것에 대해 느낀 인생무상의 감정을 담아낸 노래이다.

5 표현상의 특징

- 영탄법
'어즈버'를 통해 고려의 멸망과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6 같이 볼 작품

누이의 죽음을 제재로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제망매가〉



Chapter 2.

향가

향가

46 월명사 - 제망매가(祭亡妹歌)



46 월명사 - 제망매가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제망매가

生死路隱 생사로는

此矣有阿米次盼伊遣 예 이사매 저히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는 가노다 말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못 다 닐고 가노 닛고

於內秋察早隱風未 어느 9월 이른 부르매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이에 더에 떠날 낱다이

一等隱枝良出古 흥든 가재 나고

去奴隱處毛冬乎丁 가는 곧 모듬온더

阿也彌陀利良逢乎吾 아아 미타찰애 맞보올 내

道修良待是古如 길 닦아 기다리고다

(양주동 해독)

해석

죽은 누이를 기리는 노래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두려워지고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 다 이르고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밤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길 닦아 기다리련다.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요절한 누이를 추모하고 있다.

정서와 태도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드러난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삶의 무상감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3 주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추모

4 배경지식

* 창작 배경에 따른 시구 해석

월명사가 요절한 여동생을 위해 지었다.

제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문득 광풍이 불어 지전(제사 등을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돈처럼 생긴 종이)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전해진다.

• 어느 그술 이른 부르매

이른 부르매: 이른 바람. 누이의 요절을 암시함.

• 이에 더에 떠달 님다이

떠달 님: 떨어질 앞.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누이의 죽음을 암시함.

• 후든 가재 나고 / 가논 곧 모든더

후든 가재 나고: 한 가지에 나고,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음을 의미함.

* 문학사적 의의

〈제망매가〉는 신라 시대 10구체 향가의 대표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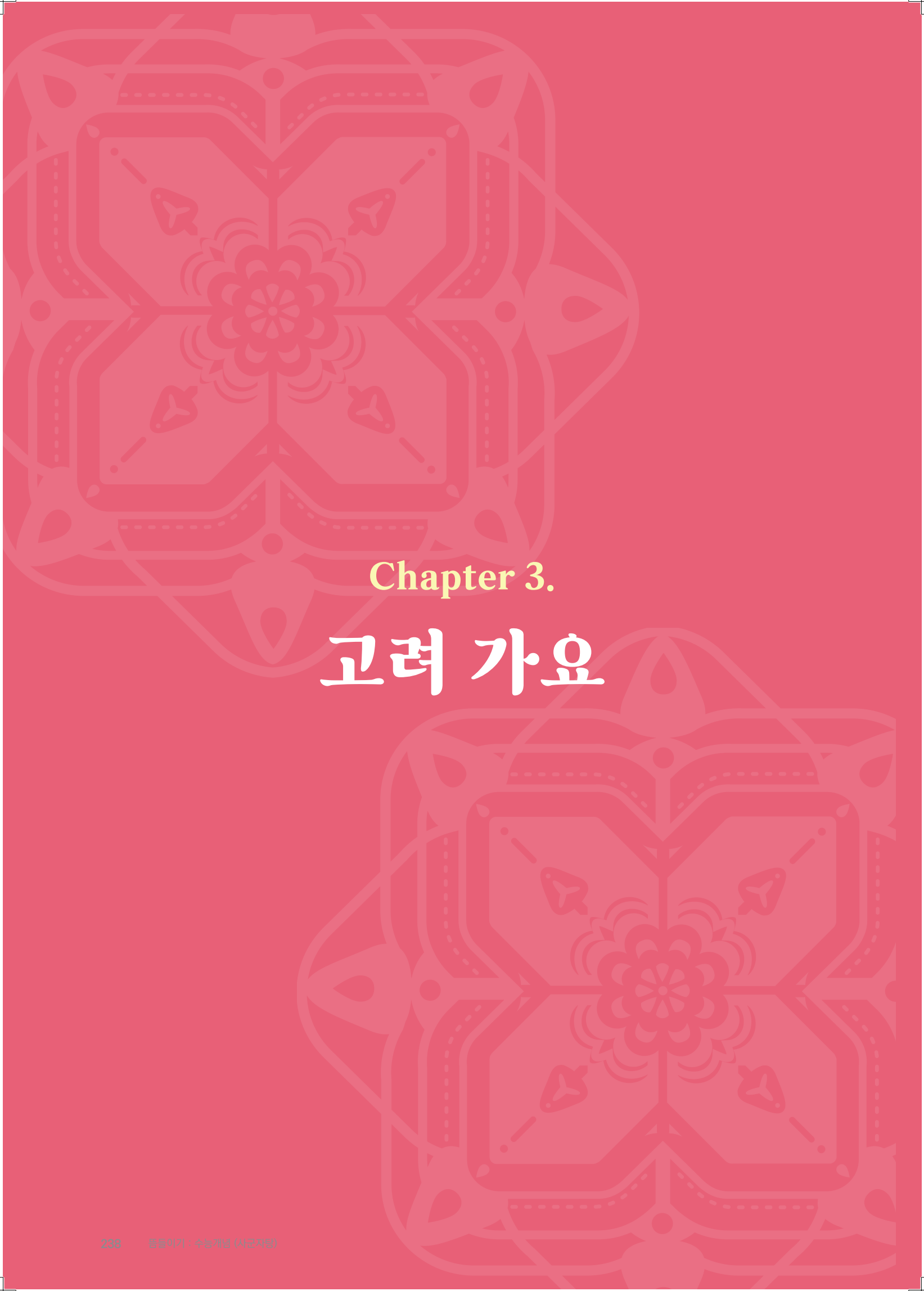
세련된 비유와 종교적 승화를 드러내어 그 문학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5 같이 볼 작품

죽음을 소재로 하는 고대가요, 백수 광부의 아내의 〈공무도하가〉

6 기출문제

2008학년도 6월



Chapter 3.

고려 가요

고려가요

- 47 정서 – 정과정(鄭瓜亭)
- 48 작자 미상 – 동동(動動)
- 49 작자 미상 – 가시리
- 50 작자 미상 – 청산별곡(靑山別曲)

47 정서 - 정과정(鄭瓜亭)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정과정

내 님물 그리수와 우나다니
산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돌 아으
잔월 효성(殘月曉星)이 아루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훈덕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헛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하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해석

정과정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나니
산 접동새 나와 비슷하다.
(모함이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줄을 아아
새벽달과 별이 아실 것입니다.
넉이라도 임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라 아아
(나를 모함하며) 우기시던 이 누구였습니까.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못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슬프구나 아아
임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아 임이여 돌이켜 들으셔 사랑해 주소서.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임에게 오해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정서와 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과, 임에 대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3 주제

유배의 억울함과 임(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연군지정)

4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녀시라도 님은 혼 뒤 녀져라 아으
녀다: 가다.
-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괴다: 사랑하다.

* 문학사적 의의

〈정과정〉은 우리말로 전하는 고려 가요 가운데 유일하게 작자가 알려져 있다.
고려 의종 때의 문인이었던 정서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어,
유배지에서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노래로 〈정과정〉을 지어 불렀다.
형식상 10구체 향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향가계 고려가요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전형적 향가 양식과는 차이가 있다. 유배 문학과 충신연주지사의 시초로 이후 연군지정을 드러내는 시가에 영향을 미쳤다.

5 같이 볼 작품

충신연주지사의 대표격 가사,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6 기출문제

2004학년도 9월 고3

48 작자 미상 – 동동(動動)

중요도 ★★☆☆☆

① 원문/해석

원문
동동

德(덕)으란 곶비에 받좁고, 福(복)으란 림비에 받좁고,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놀 나수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正月(정월)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을로 녀셔.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스불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흔 아으 滿春(만춘) 돌윗고지여.
누미 브를 즈슬 디며 나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四月(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몬 넷 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동동)다리.

해석
동동

덕은 뒤(신령님)에 바치고, 복은 앞(임금님)에 바치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오시오.
아으 동동다리.

정월 시냇물은 아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이여 홀로 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2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다.
아으 동동다리

삼월 지나며 핀 아아 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아으 동동다리

사월 잊지 않고 아아 오시는구나 꾀꼬리새여.
무슨 일로 녹사(벼슬 이름)님은 옛 나를 잊고 지내는가.
아으 동동다리

정리하기

원문

五月(오월) 五日(오일)애, 아으 수릿날 아춤 藥(약)은
즈믄 힐 長存(장존)후샬 藥(약)이라 받줍노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六月(유월)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룬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七月(칠월)스 보로매 아으 百種(백종) 排(배)후야 두고,
니믈 혼 디 녀가져 願(원)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八月(팔월)스 보로몬 아으 嘉排(가배) 나라마론,
니믈 피셔 녀곤 오늘날 嘉俳(가배)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해석

오월 오일에 아아 수릿날(단오) 아침 약은
천 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치웁니다.
아으 동동다리

유월 보름에 아아 벼랑에 버린 빗 같구나.
돌아보실 임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칠월 보름에 아아 여러 제물을 차려 두고
임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비웁니다.
아으 동동다리

팔월 보름에 아아 한가위지마는
임을 모셔 지내야만 오늘이 한가위입니다.
아으 동동다리

정리하기

원문

九月(구월) 九日(구일)에 아으 藥(약)이라 먹는 黃花(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하애라.
아으 動動(동동)다리.

十月(시월)에 아으 저미연 부룻 다호라.
겻거 버리신 後(후)에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十一月(십일월)스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한삼)
두퍼 누워 슬흘스라운데 고우닐 스식옴 념셔.
아으 動動(동동)다리.

十二月(십이월)스 분디남 7로 갓곤 아으 나솔 盤(반)잇
져 다호라.
니뭇 알피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루습노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해석

구월 구일에 아아 약이라 먹는
국화꽃이 집 안에 피니 초가가 적막하다.
아으 동동다리

시월에 아아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다.
아으 동동다리

십일월의 봉당 자리에 아아 흘적삼 덮고 누워
슬픈 일이구나 고운 임과 헤어져 지내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십이월 분지 나무로 꺾은 아아 차려 드릴 상의 젓가락 같구나.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뵙니다.
아으 동동다리.

정리하기

②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1연	서사	임금에 대한 송축을 나타낸다.	임금을 예찬하고 있다.
2연	본사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3연		임(등불)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임을 예찬하고 있다.
4연		임(진달래꽃)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5연		자신을 잊은 임을 원망한다.	임을 원망하고 있다.
6연		임의 장수를 기원한다.	임에게 헌신하고 있다.
7연		임에게 버림받았음에도 임을 따르고자 한다.	임에게 양가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
8연		임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절대자에게 기원하고 있다.
9연		임이 없는 한가위를 보내고 있다.	임의 부재로 인한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10연		적막한 초가에서 국화꽃을 보고 있다.	
11연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보리수나무에 빗대고 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12연		임과 헤어져 독수공방하고 있다.	
13연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을 젓가락에 빗대고 있다.	

③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

④ 배경지식

* 자주 나오는 고어

- 즘른 힐 長存(장존)후살 藥이라 받좁노이다. / 니믈 혼 뒤 녀가져 願(원)을 비습노이다. / 니의 알피 드러 열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루 습노이다.

받좁노이다, 비습노이다, 므루 습노이다: 바칩니다, 비웁니다, 무읍니다.

고대 국어의 객체 높임법은 습, 좁, 습 등의 선어말 어미로 실현된다.

- 二月(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스를 다호라.
~ 다호라: ~같아라. 직유법을 나타내는 지표.

- **즈믄 힐** 長存(장존)후살 藥이라 받줍노이다.

즈믄 힐: 천 년을. '즈믄'은 1000을 의미. 보통 '즈믄 해'는 오랜 시간을 의미함.

*** 문학사적 의의**

〈동동〉은 현전하는 최초의 월령체 시가로 달마다의 세시 풍속에 맞게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 대상에 자신의 마음을 빗대어 표현하며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

5 같이 볼 작품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고려가요 〈가시리〉, 〈서경별곡〉

6 기출문제

2017학년도 6월

49 작자 미상 - 가시리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눈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잡수와 두어리마누논

선후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설온님 보내옵노니 나눈

가시논 듯 도셔 오쇼셔 나눈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해석

가시리

가시렵니까 나난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난

위 증즐가 대평성대

날더러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난

위 증즐가 대평성대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위 증즐가 대평성대

서러운 임 보내드리니 나난

가시자마자 돌아 오소서 나난

위 증즐가 대평성대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1연	임과의 이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별하는 상황에 대한 자탄과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2연	자신을 떠나는 임을 원망하고 있다.	
3연	임을 붙잡고 싶지만 체념하고 있다.	이별에 대한 체념적 정서가 나타난다.
4연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3 주제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체념

4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가시리〉는 작자 미상의 고려 가요로 여음구를 통해 3음보 율격의 정형성을 지키고 있다.

화자는 임과의 이별 상황에서 인고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별의 정한을 드러낸 고려 가요의 대표작으로 이후의 이별가에 영향을 끼쳤다.

5 같이 볼 작품

공통적으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지만, 화자의 적극적 태도가 대조적인 〈서경별곡〉

6 기출문제

2017학년도 6월

50 작자 미상 – 청산별곡(靑山別曲)

중요도 ★★★★★

1 원문/해석

원문

청산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ㄸ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터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믹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해석

청산별곡

살겠노라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겠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갈던 발이랑 갈던 발이랑 본다 물 아래(속세)에 갈던 발이랑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에 갈던 발이랑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할 것인가.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운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정리하기

원문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루래 살어리랏다
 누문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루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슴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해석

살겠노라 살겠노라 바다에 살겠노라
 해초와 굴, 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겠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부엌에 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 보니 배부른 독에 독한 술을 빚었구나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이 매워 나를 잡으니 내 어찌 하겠는가.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정리하기

2 시적 상황 / 정서와 태도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속세를 벗어나 유랑하고 있다.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3 주제

속세를 벗어나 사는 유랑민의 비애

4 배경지식

* 문학사적 의의

〈청산별곡〉은 대표적 고려 가요 중 하나로 삶의 고뇌와 비애, 현실도피적 생활관을 그려내고 있다. 이외에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은둔 지향, 취락사상, 낙천성 등 우리 문학의 정서를 포괄하고 있는 작품이다. 고려인의 삶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으며, 여음구를 통한 음악적 효과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5 같이 볼 작품

〈청산별곡〉과 같이, 여음구를 통해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한 〈서경별곡〉

6 기출문제

2000학년도 수능

스스로 정리하기

